

2023. 9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한 연구

연구책임자 : 강승호

공동연구자 : 안우철

박정규

이동민

이원상

서진수

요약문

최고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의 주요 역할에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과 함께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연구를 빼놓을 수 없다. 본 정책 연구는 대학의 주요 역할 중 하나인 연구 부분에 대해서 다루며, 우리 대학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개선 및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먼저 우리 대학 연구 역량 현황을 대학공시자료와 산학협력단 자료를 통해서 타대학과 비교 분석하고, 타대학의 학부생, 대학원생 대상 연구 장려책을 살펴본다. 전임교원과 대학원생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서, 우리 대학의 연구 지원 체계에 대한 구성원들의 만족도와 개선 방향 등의 요구사항들을 파악하였다.

1) 강릉원주대학교 연구 역량 및 지원 현황

대학알리미 공시자료를 활용하여 지역중심국립대학 및 강원권 대학들과 우리 대학의 연구 역량을 비교 분석하였다. 논문 및 연구비 수주 등에서 지역중심국립대학들 중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강원권 대학들 중에는 중위권 정도의 수준을 보였다. 우리 대학 연구 역량 강화가 시급함을 알 수 있다.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입수한 우리 대학 연구비 수주 현황 자료와 대학알리미의 연구실적 및 대학원생 현황을 단과대학 별로 비교 분석하였다. 대학공시자료의 우리 대학 일반 대학원 현황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우리 대학의 일반대학원은 활성화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대학원생 수가 20명을 넘는 학과에는 치의학과(57명), 간호학과(27명), 체육학과(24명), 유아교육과(22명)가 있다. 그 밖의 단과대학 별로 대학원이 가장 활성화된 학과들을 살펴보면 인문대학 사학과(5명), 사회과학대학 관광학과(19명), 자연과학대학 생물학과(12명), 생명과학대학 원예학과와 식품영양학과(11명), 공과대학 토목공학과(13명), 과학기술대학 기계공학과와 컴퓨터공학과(4명) 이었다.

2021년도 우리 대학에서 수행한 연구과제는 총 358건이었으며, 교내 과제가 112건, 정부 과제가 182건, 지자체 과제가 11건, 민간 과제가 53건 이었다. 정부 과제 중에서 연구재단 과제가 총 100건을 차지하였다. 과제건수는 과학기술대학이 가장 많았고, 과제당 연구비 평균액은 공과대학이 가장 크다. 전반적으로 이공계열 단과대학들의 연구비 수주가 많았다. 대부분의 단과대학에서 정부지원 건수가 큰 데 반해서, 과학기술대학의 경우 민간지원 건수가 가장 많았다.

2)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타대학 지원 방안 분석

우리 대학의 연구역량강화 및 대학원 진학률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

고자 학석사 연계과정, 학부생 연구 참여 프로그램, 대학원생 연구역량강화 방안, 교수 대상 연구 지원 정책으로 구분하여 사례를 조사하였다.

학석사 연계과정 지원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지원 기준 완화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일부 국립대학의 학석사 연계과정의 경우 최소 이수학기에 대한 기준만 있고 지원 시기에 대한 별도의 제한이 없으며, 지원평점 또한 낮아지는 추세이다. 더 나아가 대학원 진학을 장려할 수 있도록 학석사 연계과정 지원 시 부여되는 혜택 확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학부과정 장학금 배정 시 우선권이 부여되지만 이보다 더 적극적인 장학금 지급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학부생 연구 참여 프로그램 또한 적극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 단국대학교 사례처럼 교내 연구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고려하여 학부생 대학원 진학을 제고 뿐만 아니라 교내 연구기관 활성화를 도모하는 방안 마련이 가능하다. 또한 학술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학부생 1인 대상 연구 참여 지원 프로그램 개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강릉원주대학교에도 캡스톤디자인, 사제학습동아리 등 유사한 프로그램이 존재하나, 팀 단위 활동비에 한정되어 지원되는 형태이고, 그 내용 또한 범위가 넓다. 학술활동에 오롯이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이 부재하다. 더 나아가 국민대학교 사례와 같이 프로그램 이수 완료 시 산학협력단장 명의의 수료증 발급, 우수성과 시상 등 해당 프로그램의 무게감과 중요도를 높일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대학원생 연구역량강화 사례 분석의 취지는 국내 주요 국립대학의 인문·사회분야 대학원 재학생 및 수료생들의 연구활동 및 장학금 지원 실태 파악하기 위함이다. 본 사례 분석의 목적은 이러한 사례 분석을 통해 향후 우리 대학의 학문후속세대의 연구활동 지원 및 연구력 향상을 강화하는 방법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보고서에서 언급한 각 국립대와 지역 연구기관의 대학원생 연구강화 지원 사례를 토대로 도출할 수 있는 점은 각 대학 및 기관이 다양한 제도와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대학원생 연구력 향상 및 장학금 지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다.

교수 대상 사례 분석의 취지는 국내 주요 국립대학의 전임교원의 연구활동 및 연구실적 지원 실태를 파악하여 우리 대학 전임교원의 연구활동 지원 및 연구력 향상을 강화하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사례 분석 결과 규모가 큰 거점국립대는 교원의 연구력 강화에 중점을 두어 보다 다양한 연구성과 활성화 지원 프로그램 마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거점국립대보다 규모가 작은 지역중심대학은 한정된 재원과 행정적 역량 내에서 교내 연구 지원 방안 다각화를 모색할뿐만 아니라 지역에 산재한 주요 연구기관과의 긴밀한 협업과 과제 수주와 같은 실질적 연구비 확보를 위한 프로그램 마련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다. 게다가 지역사회 연구기관과 대학과의 연구 지원 사업 연계이다. 특히, 이 보고서에서 사례를 든 전라도 등 지역별로 지자체 산하 연구기관의 후학양성 연구력 강화 지원 및 학술논문 지원사업의 존재는 지자체의 의지 여부에 따라 지역 대학 및 연구소와 협업하며 다양한 과제 수주 및 연구 활성화를 위한 방편이 다양하게 모색될 수 있다는 점을 말해 준다.

3) 연구 지원 체계에 관한 전임교원 설문 조사

우리 대학의 전임 교원들의 연구에 대한 인식과 역량에 대한 수준 현황을 조사 분석하여 향후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제안에 필요한 자료를 도출하고자 한다. 본 조사 문항은 교내 연구지원제도에 대한 인식수준, 교원 연구역량 강화 상대적 중요도, 타 국립대학 대비 상대적 만족도, 연구 지원제도 및 환경의 불만족 이유,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항 등으로 구성되었다. 조사에 응답한 교원은 총 59명으로 응답율은 15.9%(총 전임교원 371명 대상 배포) 였다.

설문 응답 분석 결과, 먼저 교내 연구지원제도에 대해서 “국제학술지 논문게재료 보조금 지원”, “신임교원 연구활동 지원”, “국제학술지 게재 논문 지원”, “학술회의 참가경비 보조금 지원” 등에서 우리 대학 교원들의 인식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대학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교원 연구역량 강화의 중요성에 대해 매우 중요(평균 4.7점)으로 나타나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교원 업적 분야별 상대적으로 우선순위 문항에 대해 “교육” 업적이 “연구” 업적보다 상대적으로 조금 더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타 국공립대학에 비해 우리 대학의 교원 연구제도 및 환경의 상대적 만족수준에 대해서 “매우 불만족” (32.8%), “불만족” (22.4%), “보통” (34.5%)로 나타나 다소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다. 교원 연구지원제도 및 환경이 만족스럽지 못한 이유(복수응답)로 “대학원생 부족 및 미활성화” (47회), “강의 등 교육업무 부담” (31회), “교내 연구지원제도 다양성 부족” (23회), “상대적으로 낮은 연구비 규모” (22회), “국책연구과제 수주를 위한 역량(전문인력, 인프라, 제도 등) 부족” (19회) 등의 순으로 높게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장 시급한 개선 방안에 대해 전임교원들은 “대학원 석박사 지원 확대(장학금, 우수연구자 지원 등)”, “교원 논문게재장려금 확대 및 다양화”, “박사후 과정(Post-doc) 활성화 노력”, “학부생 연구 참여제도 확대(학-석박사 연계과정 도입 등)”, “교내 연구과제 지원 및 규모 확대(학술연구조성비 등)”, “신임교원 대상 연구지원 확대(연구정착금 확대, 강의시수 감면)”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4) 연구 지원 체계에 관한 대학원생 설문 조사

대학원생 대상 설문조사에 일반대학원생 355명 대비 43명의 응답 비율이 9.6%이었다. 우리 대학의 대학원은 전반적으로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이며, 주로 석사 과정을 중심으로 운영 중에 있다. 또한, 대학원생이 특정 학과에 집중되어 있는 분포를

보였고, 전체 대학원생 중에서 파트타임 대학원생도 상당 부분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도 하였다.

설문을 통해서 파악한 결과, 대학원생들이 인식하는 전공 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양호하였다. 특히, 전공 교과는 충실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새로운 트렌드를 잘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다양한 전공 교과의 개설 및 교육과 연구 촉진을 위한 방안, 비교과 프로그램의 부족에 대해서는 만족하지 못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추후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대학원생의 연구 수행에 대한 설문 결과, 우리 대학은 대학원생의 연구 수행을 위해 비교적 양호한 환경이 제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실 생활을 하는 대학원생 중 연구실 업무나 수업 조교를 맡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으며, 이는 우리 대학의 대학원생들이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에 있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반면, 파트타임 대학원생의 비율이 적지 않았는데, 이들에 대한 연구 수행 환경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조사가 향후 필요할 것으로 보였다. 그리고 대학원생들의 연구 수행의 성과에 대해서 만족도나 성취 정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인 독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학원생의 연구 성과 증대는 우리 대학의 연구 성과로 직결되며 교원들의 연구 수행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에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와 프로그램 확충의 노력이 필요하다.

대학원생의 국제학회나 국제저널에의 참여 경험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리 대학 연구의 국제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대학원생의 국제 학회 및 저널에 대한 참여를 장려하는 제도나 인센티브가 필요하겠다. 이러한 국제 협력 연구는, 본 설문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나타난 대학원생의 진로 설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국제학회나 저널에의 참여 과정에서 전공 분야의 새로운 트렌드에 대한 파악과 연구의 동기부여, 그리고 향후 대학원생의 진로에 대한 정보 등을 습득할 수 있다면, 대학원생들의 연구 주제 탐색, 구체적 진로 설정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목 차

I. 서론	1
1. 연구 목적 및 배경	1
2. 연구 내용 및 방법	2
II. 대학공시자료를 통해 살펴본 강릉원주대학교 연구 역량 및 지원 현황	4
1. 강릉원주대학교 연구 역량 타대학과 비교	4
2. 강릉원주대학교 단과대학별 연구 역량 분석	9
3. 국립대 교연비 연구 영역 사례 비교를 통한 강릉원주대학교 연구지원 현황 및 개선 방안	13
III. 연구역량강화 사례분석: 인적 연구환경 개선 및 강화 중심으로	19
1. 학부생 대상 사례	19
2. 대학원생 대상 사례	26
3. 교수 대상 사례	33
IV. 전임교원 설문조사	39
1. 조사 응답 개요	39
2. 조사 분석결과	42
V. 대학원생 설문조사	52
1. 강릉원주대학교 대학원 현황	52
2. 설문 문항 설계	55

3. 설문 수행 및 결과 분석	56
4. 정책 시사점	65
VI. 인문·사회과학 연구 및 교육 발전을 위한 제언	66
1. 서론	66
2. 제언의 배경	67
3. 인문학 및 사회과학의 육성 방향에 대한 제언	71
VII. 결론	76

I. 서론

I.1. 연구 목적 및 배경

- 우리 대학의 연구역량 강화 및 지원 필요성과 과제
- 교육혁신에 있어서도 연구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우리 대학의 연구역량 수준 및 현황을 파악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확대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 대학은 최근에 많은 변화와 발전을 이룩하고 있다. 반면에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도 다양하다. 작년도 교수회 정책과제 “제4대 반선섭 총장 중간평가 및 대학 발전방안 보고서” 연구결과에 근거하면 미흡한 분야로 ‘교수에 대한 연구지원’¹⁾과 ‘대학 국제화’ 분야가 지적되었다.

우리 대학의 모토는 교육을 잘하는 교육중심 대학이다. 근년 들어 교육혁신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일부 질 개선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 교육분야에 있어서 ‘교수 충원을 제고’, ‘교양교육 내실화’, ‘전공교육 내실화’, ‘대학원교육 내실화’ 및 ‘교육시설 및 실험실습기자재 확충’에 대한 다섯 가지 항목에 대한 평균 평점은 전체 평균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파악되었다. 하지만 ‘대학원교육 내실화’에 대한 평가는 다른 항목에 비하여 상당히 낮게 나타났다. 교수는 일반적으로 교육과 동시에 연구임무를 지니고 있고, 연구중심대학이 아니더라도 연구와 대학원생에 대한 대학의 지원을 바라고 있어, 우리 대학의 연구 역량 현황을 파악하고 강화 방안 마련 시책은 일반적으로 필요한 것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본 연구는 대학의 교육혁신에 있어서도 연구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며, 특히 우리 대학과 같은 소학과 중심의 교육과정을 지닌 대학에서 학과간 학술분야간 공동 연구는 이를 극복하는 좋은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한국 대학의 교육혁신의 중심은 당연히 고도화하는 사회수요에 맞추어 교육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며, 현재 그 중심 내용은 학사구조 재편이 되고 있다. 학사구조 재편은 학생(수요자) 중심의 선택권 확대를 목적으로 하여, 구체적으로는 다양한 교양교육 확대와 더불어 학과 수 보다 많은 연계전공, 융복합전공 분야를 창출하고자 하고 있다. 이는 선진국 주요 대학의 패턴을 따른 것이다.

국내에서도 일부 사립대학의 경우 다양한 교원형태(강의전담, 연구교수 등 비정년 교원)로 다양하고 많은 교양교육강좌와 융복합 전공 수 확보를 통해 기존 학과 중심 편제를 조금씩 벗어나려 하고 있다. 다양한 학제 편성은 교육자의 질 확보가 이

1) 연구지원에 있어서는 ‘교수 연구활동 지원 확대’, ‘연구소 및 연구회 활성화’, ‘연구재원 확대’ 및 ‘대학원생 연구 지원’에 대한 네 가지 항목에 대한 평점은 3.43, 3.38, 3.34, 3.21이며 평균은 3.34로 연구분야 네 가지 항목 모두 전체 평균보다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대학원생 연구지원’에 대한 평가가 더욱 낮았다. 연구분야를 상승시키기 위해 ‘연구재원 확대’와 함께 ‘대학원생 연구지원’이 더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모집을 위한 단기 미봉책일 뿐이다. 이는 교수 인력이 충분할 경우에 가능한 것이다.²⁾ 학문의 세분화 현상에 따라 학자, 교육자의 양적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이라야 학생 선택권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규모 학과에 맞게 전임교수 위주로 편제된 우리 대학의 경우 다양한 교양교육 과정 확대와 융복합 전공을 창출하여 다양한 학생 선택권을 확대시키려는 목적은 장기간에 걸쳐 교육자이자 연구자이기도 한 교수의 융복합 자질의 개발과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그 동안 우리 대학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수업의 질 개선을 위해, 교수법을 강조하여 왔지만 교수자들 간의 대화, 소통을 기반으로 새로운 융합분야를 개발하거나 이의 전제로서 공동연구를 장려 지원하는 정책은 산학협력단에서 장려하는 공동연구는 대형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사업계획 수립 연구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교양 교육과정의 다양화이던 전공교육과정의 심화이던 교원들의 자질과 공동 연구역량 강화를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1.2. 연구 내용 및 방법

우리 대학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지원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현황에 대한 객관적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대학의 현황 분석을 위해 객관적으로 타대학과의 비교, 주관적으로는 구성원의 만족도 및 수요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이어서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타 대학에서 실행하고 있는 사례 등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즉 객관적 분석을 위해 타대학과의 비교분석방법, 우리 대학 지원 수요에 대하여는 설문조사, 타 대학 사례 조사법등의 분석방법을 활용한다.

본 연구의 장별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 II장에서는 우리 대학의 연구 역량 현황과 연구 지원 현황을 다각도로 비교분석한다. 우리 대학과 비슷한 지위인 대학들과의 그룹간 비교를 통해 우리 대학의 수준을 객관적으로 보고자 한다. 지역중심국립대학 그룹, 강원도내 대학들과 연구역량 및 지원현황을 비교 분석한다. 학문별 연구 특성이 다를 것이므로 단과대학별 특성을 고려하여 비교한다.

제 III장에서는 연구지원 방안 마련을 위하여 타 대학의 인적 연구역량 개선 및 강화 사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를 분석한다. 앞 절에서는 대학의 학부생 역량강화 및 대학원 진학률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1) 학석사 연계과정 2) 학부생 연구참여 프로그램 등의 사례를 조사하고, 주요 국립대학의 인문사회 분

2) 한국의 지방 국립대학의 경우는 현재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어 북경대 철학과, 사학과는 학부정원 40명(학부생 160명)에 전공교수가 70명이나 된다.

야 재학생 및 수료생들의 연구활동 및 장학금 지원 실태를 파악한다. 이어 다음 절에서 대학 연구소, 교수대상의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사례를 조사한다.

제 IV장과 V장에서는 대학 구성원들에 대한 설문 조사를 통해 연구지원 현황 및 수요를 파악하고자 한다. 먼저 전임교원들에 대해서는 우리 대학의 다양한 연구지원제도에 대해 느끼는 중요도와 만족도를 중심으로 지원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한다. 또한 미래의 연구자, 학문후속세대로 편입가능 자원인 대학원에 대하여 연구지원 현황과 만족도를 조사한다.

제 VI장에서는 한국 사회 모든 대학이 마찬가지이지만, 연구비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는 응용학분 분야에 비해 투자가 적은 기초학문 분야(인문·사회·자연) 특히 인문·사회과학 분야를 중심으로 급변하는 사회에 대응한 인문·사회과학의 역할이 어떠해야 할지를 탐색하여, 인문사회과학의 학문적 특성을 고려한 연구역량 및 교육 혁신의 발전 방안을 모색해보고 VII장에서는 각 장의 내용을 요약하고, 본 보고서의 결론을 도출한다.

II. 대학공시자료를 통해 살펴본 강릉원주대학교 연구 역량 및 지원 현황

본 장에서는 우리 대학의 연구 역량 및 지원 현황을 조사 분석하여 앞으로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서 개선해야할 부분들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장에서 연구 역량을 수치화하여 분석하기 위해서, 대학공시자료의 논문 및 저서 등의 연구 실적과 산학협력단에서 제공받은 연구비 수주액을 활용한다. 대학공시자료의 한계로 인해서 연구 역량의 질적 측면 보다는 양적 측면을 분석하게 된다.

II.1절은 대학알리미 공시자료를 활용하여 지역중심국립대학 및 강원권 대학들과 우리 대학의 연구 역량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사정이 비슷한 타 대학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 대학이 개선해야할 부분들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I.2절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입수한 우리 대학 연구비 수주 현황 자료와 대학알리미의 연구실적 및 대학원생 현황을 단과대학 별로 비교 분석한다. 단과대학 별 특성을 이해하고, 단과대학별 맞춤형 연구 역량 강화 방안 도출에 분석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I.3절은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규정 중 연구 영역을 중심으로 타 국립대학들과 비교한다. 타 대학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서 우리 대학 연구 영역 규정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II.1. 강릉원주대학교 연구 역량 타대학과 비교

대학알리미의 연구 실적량과 연구비 수주액 공시자료를 수집 비교하여, 국립대학들 내에서 또 강원권 대학들 내에서 우리 대학의 연구 역량이 어느 정도 수준인 지 분석한다.

II.1.1. 지역중심국립대학 연구 역량 비교 분석

우리 대학과 비슷한 역사와 규모를 가지고 있는 지역중심국립대학인 강릉원주대, 공주대, 군산대, 목포대, 순천대, 안동대, 창원대 7곳을 선정하여 연구 역량을 비교 분석하였다. <표 II-1>을 보면 우리 대학의 논문 실적은 비교 대상 7개 국립대학 중 강릉캠퍼스의 경우 연구재단 등재지 실적 최하위이고, SCI급 논문지 실적도 6번째 수준으로 창원대를 제외하면 최하위이다. 원주캠퍼스의 경우 연구재단등재지는 5번째 수준으로 군산대, 창원대를 제외하면 최하위이고, SCI급 논문지는 역시 창원대를 제외하면 최하위이다. 저서 실적은 평균 이상이였다. 표준편차를 봤을 때 지역중심국립 대학들의 연구실적량은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나, 우리 대학의 실적은 평

군에서 표준편차를 뺀 수준 정도로 양적 연구 실적은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본 비교는 양적 실적 비교이므로 질적인 연구 역량을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표 II-2>을 보면 우리 대학의 교외 연구비 수주 실적은 조사 대상 지역중심국립 대학들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인다. 역시 평균에서 표준편차를 뺀 수준 정도로써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 교외 연구 과제 수에서도 타 국립 대학들은 전임교원 당 1과제 이상씩 수주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 대학은 강릉 캠퍼스 전임교원 1인당 0.62개, 원주 캠퍼스 전임교원 1인당 0.78개의 연구 과제를 수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국립 대학내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교내 연구비의 경우도 <표 II-2>를 보면 가장 낮은 1인당 평균 1백만원대의 연구비 수준을 보이고 있다. 다만 대학 알리미 공시 자료에서 1인당 교내 연구비를 구할 때 순수 교내 연구비에 교내 대응자금을 더하여 전임 교원수로 나누기 때문에, 실제 교내 연구비 수준은 <표 II-2>의 교내 연구비 항목을 전임교원 수로 나누어야 하며 평균적인 수준으로 보인다. 군산대와 창원대는 전임교원 수와 교내 과제수가 일치하는 데 이는 국립대학 교연비의 연구 영역 공통 부분을 교내 연구비로 한 영향으로 보인다. 교연비 연구 영역에 대해서는 III.3절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다. 교내 대응자금은 중점연구소와 같은 대규모 과제를 수주할 때 대학에서 대응하여 책정하여 연구비로써 대학 별로 편차가 크다. 공주대, 목포대, 순천대, 안동대는 교내 대응자금 규모가 크고, 강릉원주대, 군산대, 창원대는 교내 대응자금이 거의 없었다. 우리 대학도 대형 중점연구소를 유치하여 연구 인프라를 공고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II-1>과 <표 II-2>를 통해서 비슷한 역사와 규모를 가지고 있는 타 국립대학 대비하여 논문출간 및 연구비 수주 실적이 모두 최하위권 수준으로 조사되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표 II-1〉 2022년도 대학알리미 공시 국립대학 별 전임교원 평균 연구 실적량

대학명	국내 기준	국제 기준	연구재단 등재지 (후보포함)	SCI급/ SCOPUS 학술지	저·역서 실적
강릉원주대(강릉)	0.584	0.263	0.472	0.256	0.101
강릉원주대(원주)	0.787	0.241	0.601	0.241	0.326
공주대	0.747	0.414	0.698	0.406	0.076
군산대	0.533	0.308	0.517	0.294	0.078
목포대	0.780	0.353	0.758	0.315	0.060
순천대	0.757	0.348	0.705	0.322	0.026
안동대	0.817	0.291	0.739	0.271	0.122
창원대	0.488	0.215	0.485	0.198	0.052
평균값	0.687	0.304	0.622	0.288	0.105
표준편차	0.121	0.062	0.110	0.059	0.088

〈표 II-2〉 2022년도 대학알리미 공시 국립대학 별 연구비 수주 현황

대학명	전임 교원 (명)	교내 연구비 (백만원)	교내 과제수	교내 대응자 금 (백만원)	1인당 교내 연구비 (천원)	교외 과제수	1인당 교외 연구비 (천원)
강릉원주대(강릉)	282	383	89	60	1,571	173	54,578
강릉원주대(원주)	93	99	23	0	1,065	73	28,459
공주대	568	1,183	153	246	2,516	655	81,639
군산대	338	1,454	374	60	4,481	356	83,281
목포대	298	287	68	388	2,263	310	144,885
순천대	315	343	61	546	2,823	340	88,697
안동대	265	201	44	622	3,107	270	65,744
창원대	346	2,654	321	70	7,873	383	90,998
평균값					3,212		79,785
표준편차					2,006		31,476

II.1.2. 강원권 대학 연구 역량 비교 분석

우리 대학이 소재하고 있는 강원도의 4년제 대학 중 강릉원주대, 강원대, 한림대, 연세대(원주), 상지대, 한라대, 관동대 7곳을 선정하여 연구 역량을 비교 분석하였다. <표 II-3>을 보면 우리 대학의 논문 실적은 비교 대상 7개 강원권 대학 중 강릉 캠퍼스의 경우 연구재단 등재지 실적은 평균 수준이고, SCI급 논문지 실적은 평균보다 조금 낮았다. 원주캠퍼스의 경우 연구재단등재지는 2번째 수준으로 상위권이고, SCI급 논문지 실적은 평균보다 조금 낮았다. 연구재단등재지와 SCI급 논문지 게재 실적을 합해서 비교해 보면, 강원권에서는 강원대가 가장 논문 실적이 좋았으며, 우리 대학과 한림대, 연세대(원주)는 비슷한 수준을 보인다. 다만 한림대와 연세대(원주)는 우리 대학보다 SCI급 논문지 실적이 조금 더 좋았으며, 반면 연구재단등재지는 우리 대학에서 조금 더 많이 게재하였다. 관동대, 한라대, 상지대는 우리 대학보다 연구 실적이 낮았다. <표 II-4>을 보면 우리 대학의 교외 연구비 수주 실적은 조사 대상 강원지역 대학들 중에서 중간 정도 수준을 보인다. 강원대 춘천 캠퍼스의 1인당 교외 연구비가 가장 많았으며, 강릉 캠퍼스는 연세대(원주), 한림대 다음인 4번째로 중간 정도 수준이다. 교내 대응자금을 제외한 교내 연구비는 한림대가 가장 규모가 크고, 강원대와 우리 대학 순이었다. 교내 대응자금은 강원대(춘천), 한림대, 연세대(원주)는 3억원 이상이고, 그 외 대학들은 모두 6천만원 이하였다. II.1.1 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대학도 대형 중점연구소를 유치하여 연구 인프라를 공고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II-3>과 <표 II-4>를 통해서 강원권 대학들 중에서 논문 출간 및 연구비 수주 실적이 모두 중위권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표 II-3〉 2022년도 대학알리미 공시 강원권 대학 전임교원 평균 연구 실적량

대학명	국내 기준	국제 기준	연구재단 등재지 (후보포함)	SCI급/ SCOPUS 학술지	저·역서 실적
강릉원주대(강릉)	0.584	0.263	0.472	0.256	0.101
강릉원주대(원주)	0.787	0.241	0.601	0.241	0.326
강원대(춘천)	0.581	0.562	0.550	0.553	0.080
강원대(삼척)	0.548	0.415	0.534	0.360	0.050
한림대	0.271	0.532	0.257	0.519	0.030
연세대(원주)	0.309	0.446	0.303	0.444	0.026
상지대	0.427	0.100	0.415	0.100	0.049
한라대	0.609	0.074	0.604	0.062	0.075
관동대	0.531	0.182	0.529	0.181	0.032
평균값	0.516	0.313	0.474	0.302	0.085
표준편차	0.150	0.172	0.118	0.167	0.088

〈표 II-4〉 2022년도 대학알리미 공시 강원권 대학 연구비 수주 현황

대학명	전임 교원 (명)	교내 연구비 (백만원)	교내 과제수	교내대 응자금 (백만원)	1인당 교내 연구비 (천원)	교외 과제수	1인당 교외 연구비 (천원)
강릉원주대 (강릉)	282	383	89	60	1,571	173	54,578
강릉원주대 (원주)	93	99	23	0	1,065	73	28,459
강원대(춘천)	557	628	45	798	2,560	654	97,049
강원대(삼척)	191	170	13	1	897	118	37,969
한림대	759	1,465	138	418	2,480	716	66,947
연세대(원주)	400	220	21	383	1,508	331	76,174
상지대	290	392	24	10	1,386	132	28,759
한라대	125	100	74	3	826	50	13,619
관동대	410	290	232	50	828	138	23,311
평균값					1,458		47,429
표준편차					628		26,338

II.2. 강릉원주대학교 단과대학별 연구 역량 분석

우리 대학 내 10개 단과대학의 연구 실적, 연구비 수주, 대학원 현황을 비교 분석한다. 연구실적과 대학원생 현황은 대학알리미의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연구비 수주 현황은 산학협력단에서 제공받았다.

II.2.1. 대학공시자료를 통해 살펴본 단과대학별 연구 실적 및 대학원 현황

대학공시자료의 연구 실적을 단과대학별로 조사하여 표로 정리하였다. 단과대학별로 전임교원 연구재단등재지와 SCI급 논문지 게재 평균을 구하여 <표 II-5>에 정리하였다. 연구재단등재지는 인문대학과 사회과학대학 게재 실적이 각각 0.84편과 0.72편으로 높았으며, SCI급 논문지는 공과대학, 생명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의 게재 실적이 각각 0.43편, 0.39편, 0.33편으로 높았다. 연구재단등재지와 SCI급 논문지 게재 실적 합은 보건복지대학과 인문대학이 각각 0.93편과 0.91편으로 높았다.

<표 II-5> 2022년도 대학알리미 공시 강릉원주대 단과대학 별 대학원생 수 및 전임교원 평균 연구 실적량

단과대학명	석사 과정 학생 수	박사 과정 학생 수	연구재단 등재지 (후보포함)	SCI급/ SCOPUS 학술지	논문 게재 실적 종합
인문대학	11	3	0.84	0.07	0.91
사회과학대학	34	19	0.72	0.09	0.82
자연과학대학	23	2	0.49	0.33	0.82
생명과학대학	37	15	0.23	0.39	0.62
공과대학	18	12	0.20	0.43	0.63
예술체육대학	27	24	0.59	0.12	0.71
치과대학	28	29	0.49	0.2	0.69
보건복지대학	33	26	0.68	0.26	0.93
과학기술대학	10	4	0.64	0.19	0.83
평균값	24.6	14.9	0.54	0.23	0.77
표준편차	9.3	9.8	0.20	0.12	0.11

대학공시자료의 일반 대학원 현황을 단과대학별로 정리하여 <표 II-5>에 정리하였다. 본 과제는 연구 역량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교육 대학원, 경영 정책 대학원은 제외하였다. 석사과정 학생 수는 생명과학대학, 사회과학대학, 보건복지대학 순이었으며, 박사과정 학생 수는 치과대학, 보건복지대학, 예술체육대학에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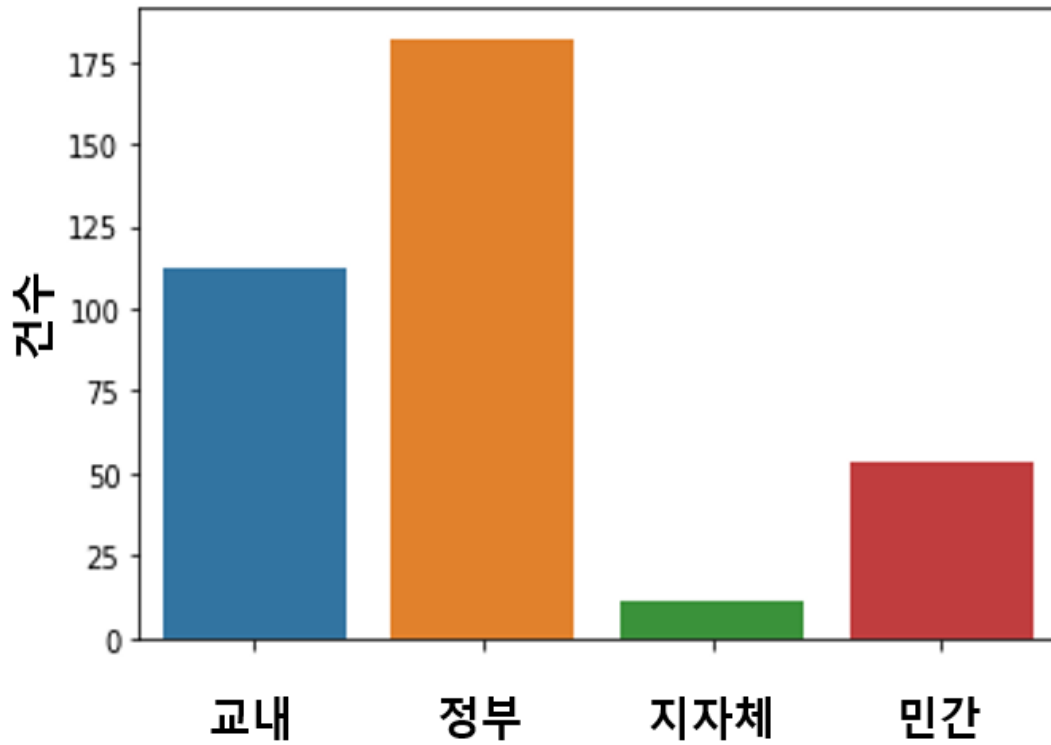
이공계열 보다는 사회과학, 보건복지, 치과대학의 대학원생 수가 많았으며, 이공계열에서는 생명과학대학의 대학원생 수가 많았다. 전반적으로 우리 대학의 일반대학원은 활성화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대학원생 수가 20명을 넘는 학과에는 치의학(57명), 간호학과(27명), 체육학과(24명), 유아교육과(22명)가 있다. 그 밖의 단과대학 별로 대학원이 가장 활성화된 학과들을 살펴보면 인문대학 사학과(5명), 사회과학대학 관광학과(19명), 자연과학대학 생물학과(12명), 생명과학대학 원예학과와 식품영양학과(11명), 공과대학 토목공학과(13명), 과학기술대학 기계공학과와 컴퓨터공학과(4명) 이었다.

II.2.2. 강릉원주대 연구비 수주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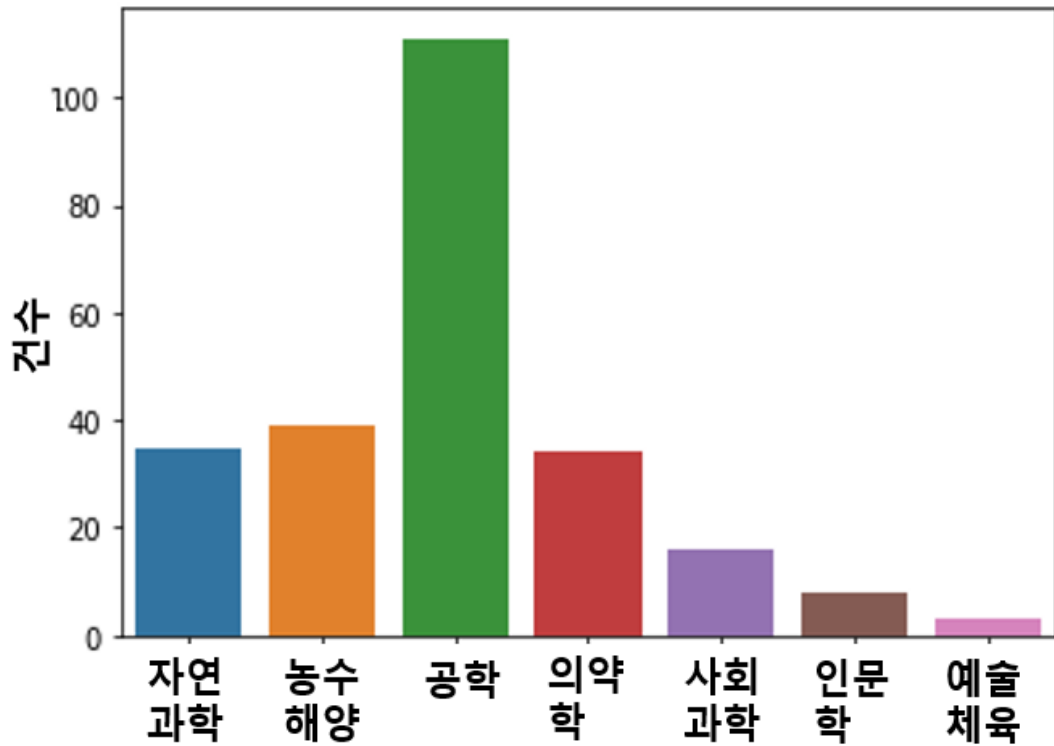
산학협력단에서 입수한 2021년도 연구비 수주 현황을 단과대학별로 정리하였다. 산학협력단 자료에 따르면, [그림 II-1]에 도시한 바와 같이 2021년도 우리 대학에서 수행한 연구과제는 총 358건이었으며, 교내 과제가 112건, 정부 과제가 182건, 지자체 과제가 11건, 민간 과제가 53건 이었다. 이 중 교내 과제는 일반학술연구비, 신진교수연구비, 정책연구비, 연구년연구비, 단기해외파견 등이었다. 정책연구비, 단기해외파견을 제외하고 교내 연구비 규모는 건당 450만원에서 680만원 사이로 비슷한 규모였다. 교내 과제를 제외한 교외 과제는 총 246건 이었으며, 직접적인 과제 수주의 대상이 되는 교외 과제를 중심으로 연구비 수주 현황을 살펴보겠다.

교외 연구 과제를 학문분야 별로 구분해 [그림 II-2]에 도시하였다. 총 246건의 교외 과제 중에서 공학 111건, 농수해양 39건, 자연과학 35건, 의약학 34건, 사회과학 16건, 인문학 8건, 예술체육 3건으로 조사되었다. 교외 연구과제를 지원한 기관을 지원 횟수가 많은 순서로 <표 II-6>에 정리하였다. 연구재단이 교육부와 과기부 지원을 합하여 100건을 지원하여 가장 많았다. 연구재단의 각종 사업에서 수주한 과제들이 교외 연구 과제 중 큰 비중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연구재단 외에는 과제 지원 횟수가 모두 10회이하였다. 강원도와 유관기관, 지역 업체 등과 협업을 통해서 과제를 더 수주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그림 II-1] 강릉원주대 연구비 지원 주체별 연구 과제 수주 현황(2021년)



[그림 II-2] 강릉원주대 학문분야 별 교외 연구 과제 수주 현황(2021년)



〈표 II-6〉 강릉원주대 지원기관 별 교외 연구 과제 수주 현황(2021년, 2건 이상)

지원 기관	과제 지원 횟수
한국연구재단(교육부)	53
한국연구재단(과기부)	47
한국산업기술진흥원	9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병원	7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7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5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5
국립수산과학원	5
(재)강릉과학산업진흥원	4
(주)휴리스트	3
농촌진흥청	3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2
범준이앤씨(주)	2
강릉시	2
한국산업단지공단	2
한국항공우주연구원	2
강원도	2
강원대학교	2
강원대학교삼척캠퍼스	2
한국로봇산업진흥원	2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2
(주)이너트론	2

II.2.3. 강릉원주대 단과대학별 교외 연구비 수주

산학협력단에서 입수한 2021년도 연구비 수주 현황을 과제 연구책임자 소속 단과대학별로 나누어 〈표 II-7〉에 정리하였다. 과제건수는 과학기술대학이 가장 많았고, 과제당 연구비 평균액은 공과대학이 가장 크다. 전반적으로 이공계열 단과대학들의 연구비 수주가 많았다. 대부분의 단과대학에서 정부지원 건수가 큰 데 반해서, 과학기술대학의 경우 민간지원 건수가 가장 많았다. 과학기술대학에서 원주 지역 산업체들과의 협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 지원의 경우 생명과학대학이 가장 많았다.

〈표 II-7〉 강릉원주대 단과대학 별 교외 연구 과제 수주 현황(2021년)

단과대학명	과제 건수	정부지원 건수	지자체지원 건수	민간지원 건수	과제당 연구비평균 (천원)
인문대학	5	5	0	0	16,702
사회과학대학	11	6	3	2	27,107
자연과학대학	26	26	0	0	69,285
생명과학대학	54	41	5	8	78,497
공과대학	47	39	0	8	126,864
예술체육대학	4	3	1	0	14,700
치과대학	26	23	0	3	65,999
보건복지대학	14	12	1	1	30,944
과학기술대학	59	27	1	31	36,488

II.3. 국립대 교연비 연구 영역 사례 비교를 통한 강릉원주대 학교 연구지원 현황 및 개선 방안

국립대학 회계재정법 제정으로 국립대의 기성회회계가 대학회계로 2015년 3월 변경됨에 따라 기존 기성회회계에서 인건비 보조 성격으로 지급되던 각종 보조금들이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으로 개편되었다.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은 교연비라고 줄여 부르고 있으며, 같은 교연비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대학 별로 상이한 기준을 가지고 액수와 지급 방식이 다르다. 본 과제에서는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중에서 연구 영역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우리 대학의 연구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한다. 먼저 지역거점대학 3곳과 지역중심대학 3곳을 선정하여 교연비 연구 영역 지급 기준을 살펴보고, 우리 대학의 연구 영역 지급 기준과 비교하여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II.3.1. 국립대학 교연비 연구 영역 지급 기준 사례 분석

국립대학 중 강원대, 군산대, 부산대, 순천대, 충남대, 창원대 6곳(지역중심 3곳, 지역거점 3곳)을 선정하여 교연비 연구 영역 지급 기준을 비교하였다. 대부분의 대학에서 연구 영역에 정책 연구를 포함하고 있는데, 정책 연구는 참여 대상 교원이 한정된 경우가 많고, 대부분의 대학들에서 비슷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서 정책 연구는 제외하고 조사하였다.

1) 강원대

연구 영역 공통 성과는 연간 5백만원으로 산정되어 있으며, 준비금 2백만원은 선 지급되며 결과보고서 제출 시에 3백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결과물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 결과보고서는 논문 실적으로 대체 가능하다.

연구 영역 선택 성과 대상은 저술, 학술지 게재논문, 창작발표활동이며 최대 1천만원까지 지급하며, 예산을 초과할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감액하여 지급한다. 선택 성과 지급 시에 인문사회·예체능과 자연과학·공학·의학의 기준이 다르며 SCI급 논문은 논문 1편당 350만원에서 최대 700만원까지 지급되며, SCOPUS 등재지도 250만원(인문사회·예체능) 또는 300만원(자연과학·공학·의학) 지급된다. 연구재단 등재지의 경우 230만원(인문사회·예체능) 또는 150만원(자연과학·공학·의학) 지급된다. 저서와 창작발표활동에도 기준에 따라 비슷한 규모로 지급된다. 선택 성과는 저자수 기준 기여도를 곱하여 최종 지급액이 결정된다.

연구 영역 연구과제 지원은 신입교원의 경우 정착연구비로 인문사회, 예체능 계열은 1천만원을 자연과학, 공학, 의학 계열은 1천5백만원을 기본으로 지급하며, 기본연구결과물(연구재단등재지이상) 1편 외에 SSCI, A&HCI, SCI, SCOPUS학술지에 우수연구논문 1편을 추가 게재할 경우 기본지원금의 100%를 추가지원(결과물 총 2편 제출) 한다. 그 외 재직교원 중 연구개시일 현재 외부연구과제 3개 이상 수행, 용역 및 위탁과제 포함 연구비 총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기초연구를 수행할 수 있으며, 분야마다 상이하나 최대 2천만원을 연구비로 2년간 분할 지급하며, 과제 연구 성과로 자연계열은 SCI급 주저자 논문 1편, 인문사회, 예체능 계열은 연구재단 등재지급 이상 주저자 논문 1편을 요구한다. 그 외 연구년 지원금은 6백만원이다.

2) 군산대

연구 영역의 공통 성과로 연구활동계획서와 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328만 2천원이 지급된다. 지급 방식은 계획서 제출 시 절반을 받고, 보고서 제출 시 나머지 절반을 받는다.

연구 영역 선택 성과로 논문게재에 따른 장려금이 있다. SCI급 논문은 논문 1편당 350만원에서 최대 700만원까지 지급되며, SCOPUS 등재지도 1편당 200만원 지급된다. 연구재단 등재지는 인문사회, 이공해양으로 나누어 지급 기준이 다르며, 인문사회는 200만원, 이공해양은 120만원이다. 논문게재장려금은 공저자 수에 따라서 감액하여 지급된다.

연구 영역 연구과제 지원은 학술공모(기존 교수)와 신입교원 과제 모두 과제당 8백만원이 지급되며, 연구종료 후 1년 이내에 학술지에 결과물을 게재하여야한다.

3) 부산대

교연비 연구 영역이 기본연구지원 사업으로 되어있다. 사전 지급 연구비 성격으로 연구계획서, 반납동의서 및 연차보고서를 제출한 전임교원을 대상으로 한다. 기본연구지원사업(2년) 종료 후 결과물을 미제출할 경우 연구비 회수 대상자가 된다. 연구

비는 2,300만원으로 2년간 4회에 걸쳐서 분할 지급된다. 최종연구결과물로는 인문사회 및 자연계열은 논문게재, 예체능계열은 발표, 전시, 입선 등의 실적이 필요하며 실적이 있는 경우 100% 지급, 결과보고서만 있을 경우 50% 지급된다. 참고로 부산대학교의 2022학년도 교육연구학생지도비 예산 총 280억원 중에서 138억원이 기본연구지원사업에 배정되어 있다.

연구 영역 연구과제 지원은 신입교수연구정착금으로 인문 사회계, 예 체능계, 의 치 한의학(임상) 계열은 과제당 1,000만원, 이공계, 의치한의학(기초) 계열은 과제당 1,500만원을 지급한다.

부산대의 경우 개별 논문에 대한 장려금이 교연비에 나와 있지 않은데, 논문게재 장려금이 없는 것인지 산학협력단 등의 다른 회계에서 지급되고 있는 지 확인이 필요하다.

4) 순천대

연구 영역의 공통 성과로 연구계획서와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300만원이 지급된다. 공통 성과 실적증빙자료로 논문(별쇄본), 저서(출판물), 실기(실적물 등), 특허(특허증), 연구비(연구비 수주내역), 재정지원사업 수주(수주 내역), 연구성과 발표 대회, 전국규모 이상 학회 역할 (좌장 or 토론자) 수행 등이 있다. 이 때 논문은 주저자, 특허는 대표발명자, 과제 수주는 연구책임자에 한해 인정한다.

연구 영역 선택 성과로 논문게재, 저서 출판, 실기 실적에 따라 우수연구실적 장려금이 지급된다. 1인당 2건 이내에 한하며 교연비 단독사자 문구가 표기된 연구 실적(논문, 저서 및 실기실적)에 한하며, 논문의 경우 SCI급 논문은 논문 1편당 200만원, SCOPUS 및 연구재단 등재지는 1편당 150만원 기준이며 저자 수에 따른 지원금 감액이 있다. 저서와 실기연구 실적에 대해서도 비슷한 기준이 적용된다.

순천대의 경우 다른 국립 대학들과는 다르게 학술공모 및 신입교수 연구과제비가 교연비 항목에 따로 나와 있지 않다. 산학협력단 등 다른 회계를 통해서 지급되고 있는 지 확인이 필요하다.

5) 충남대

연구 영역 공통지표로 연구활동 실적물(학술지 게재 논문, 창작,저술(저·역서), 특허등록)이 있으면 지급기준액(2022년 기준 900만원)을 지급하고, 실적물 없이 연구활동보고서(20페이지 이상)를 제출할 경우 지급기준액의 80%만 지급한다. 이 때 교내에서 논문장려금 지원된 논문 및 교내 자체연구비로 지원된 논문은 실적 활용이 불가하며, 정부재정지원사업 등 교내에서 운영 중인 사업 등을 통해 지원된 논문도 실적 활용 불가이다. 공통영역 연구활동비 실적물로 논문을 제출할 경우 이·공계열 및 의학계열은 SCOPUS 이상 A등급, 한국연구재단등재지 B등급, 인문·사회·예체능열은 한국연구재단등재지 이상 A등급, 한국연구재단등재후보지 B등급으로 산정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지급되는 인센티브 기준액은 우수논문게재 및 입상지도 장려금 지원사업학과계열·논문등급별 지원(기준)액과 동일하며, 조정률은 70% 적용한

다. 인센티브를 통해서 논문게재장려금 성격으로 70% 보전해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연구영역 선택지표는 다른 대학들과는 조금 다르게, 학술발표, 교외 연구비 수주, 학술지 논문게재(교내 학술연구진흥사업의 논문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논문 대상), 창작활동, 저술, 특허 등에 대해서 항목별 점수를 배점하고 2022년 기준 20점을 채울 경우 226만원(선택영역 최고액), 그 이하는 획득 점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충남대 연구영역 1인당 지급기준액은 공통영역과 선택영역을 합쳐서 1,130만원 이다.

순천대와 마찬가지로 충남대의 경우에도 학술공모 및 신입교수 연구과제비가 교연비 항목에 따로 나와 있지 않다. 산학협력단 등 다른 회계를 통해서 지급되고 있는 지 확인이 필요하다.

부산대와 마찬가지로 충남대의 경우에도 개별 논문에 대한 장려금이 교연비에 나와 있지 않은데, 논문게재장려금이 없는 것인지 산학협력단 등의 다른 회계에서 지급되고 있는 지 확인이 필요하다.

6) 창원대

창원대의 경우 부산대와 유사하게 연구 영역이 자율 연구 과제로 되어 있다. 즉, 모든 전임교원에게 공통적으로 교내 연구과제를 수행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과제 수행기간은 2년이다. 1차년도에는 국내, 국제 전문학술지 논문 게재 및 그에 상응하는 저서, 예체능 계열의 공연, 전시, 발표 실적 또는 학술연구활동 실적에 대한 연구계획서 및 중간보고서를 제출한다. 연구계획서 제출 시에 선급금으로 240만원 지급되며, 중간보고서와 위 4가지 실적 중 하나를 제출하면 360만원이 추가 지급되어 총 6백만원이 지급된다. 2차년도에는 결과보고서 제출 후 우수논문 게재장려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자율연구과제 1번째 연구실적(논문·저서·개인발표회)은 단독사사 표기를 하여야 하며, 논문은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이어야 한다. 자율연구과제 2번째 이상 연구실적은 단독 기준 환산하여 최대 2편까지 장려금을 지원한다. 즉, 자율과제연구실적 1편은 연구재단 등재 후보지 이상 논문 게재 실적에 대해서 400만원의 논문게재장려금이 지급되며 주저자이며 사사표기가 되어 있어야 한다. 추가로 최대 2편(단독으로 참여율 환산 기준)까지 우수논문게재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며, 우수논문게재장려금은 SCI급 논문 350만원, SCOPUS 및 연구재단 등재지는 1편당 250만원이 기준 지급액이며 저자수에 따라 감액된다.

자율연구과제 외에 선택지표로써 과제 선정 장려금이 있으며 한국연구재단에 창원대학교 주관의 개인 연구과제로 공모 신청하여 신규 선정된 경우 연구책임자에게 건당 100만원을 지원한다. 또 다른 선택 지표로써 연구년 및 파견교수 선발자를 대상으로 연구자 기획역량 과제가 있으며 1인당 600만원을 지원한다.

II.3.2. 강릉원주대 교연비 연구 영역 지급 기준 및 개선 방향

II.3.1절에서 살펴본 여러 대학들의 교연비 지급 기준을 보고, 우리 대학의 교연비 기준과 비교하여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강릉원주대 연구 영역의 공통 성과로 연간 309만원 산정되어 있으며, 결과물로 발표, 논문, 저서, 번역서 중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결과물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공통 성과는 지급되지 않는다.

연구 영역 선택 성과 대상은 학술지 게재논문, 저술, 공연과전시이며, SCI급 논문은 1편당 300만원, 연구재단 등재지는 논문 1편당 160만원이 지급되며 저자수에 따라서 감액된다. 계열별 차등은 없다.

연구 영역 연구과제 지원은 신입교원의 경우 정착연구비로 자연계열은 400만원, 인문사회계열은 300만원이다. 일반연구과제는 자연계열 550만원, 인문사회계열은 400만원이다. 연구년 지원금은 1년간 600만원이며, 해외장기파견은 1년간 1천5백만원이다.

교연비 연구 영역 가능한 개선 방향으로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요약해 보았다.

1) 연구 영역 비중 확대

우리 대학의 교연비는 2023학년도 기준 <표 II-8>과 같이 편성되어 있다.

<표 II-8> 강릉원주대 교육연구학술지도비 배정 계획(2023학년도, 단위: 천원)

영역별	교육	연구	학생지도	총 액	비고
예산액	1,880,584 (25.8%)	2,723,382 (37.3%)	2,688,548 (36.9%)	7,292,514 (100%)	

연구 공통	논문게제 장려금	정책 연구	연구년/ 장기해외파견	그 밖의 학술지원	학술연구조성비	신입교원 연구지원
1,115,490	801,392	185,000	96,000	150,000	223,500	152,000

전체 교연비 총액 약 73억원 중 연구 영역이 37.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이를 50%이상으로 증액시켜 연구 실적에 대한 보상을 강화해야한다. 교연비가 생긴 이후 확일적으로 편성하여 유지되어온 교연비 배정안을 부산대, 충남대 등 타대학의 사례를 참고하여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교연비 총액을 늘릴 수는 없으므로 연구 영역을 증액하고 학생지도 영역을 줄이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상담 등으로 역시 확일화된 학생지도 영역도 이번 기회에 변화를 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연구 영역의 확대는 연구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

고, 특히 연구년과 해외파견자들에게도 다른 영역과는 다르게 연구 영역은 지금 가능하므로 교원들에게 추가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

2) 연구 영역 내에서 공통 성과 비중 확대

우리 대학의 현재 연구 영역 체계를 보면, 연구 영역 총액 27억원 중에서 11억원 정도만 공통 성과이고 나머지 16억원 중 8억원은 논문장려금, 그 외 8억원은 각종 연구비 등으로 배정되어 있다. 대학회계가 아닌 산학협력단 등 다른 회계에서 지급 가능한 연구비 등의 비용은 다른 회계로 변경하는 것이다. 남은 재원을 활용하여 연구 영역의 공통 부분을 70~80% 선까지 또는 그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다. 다만 현재는 학술발표 이상으로 되어있는 공통 성과 요구 사항을 연구재단등재지 이상으로 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표 II-1>을 보면 지역중심 국립대학교들의 전임교원 평균 학술지 게재 논문 편수가 1편 이하이므로, 공통 성과로 학술지 논문 게재 이상을 요구하고 모든 전임교원이 이를 달성한다면 산술적으로 우리 대학의 양적 연구 성과를 타 지역중심 국립 대학 이상으로 개선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3) 대학본부 또는 산학협력단의 연구 지원 역량 확충

우리 대학에는 본부에 연구처가 없으며, 산학협력단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로 인해서 연구진흥과 대학원 활성화 등에 한계가 있다. 연구처 신설이 어렵다면 실질적으로 연구처의 역할을 산학협력단이 수행할 수 있도록 역량과 예산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충남대 산학협력단의 학술연구진흥 사업을 보면, 우리 대학의 산학협력단의 연구소지원, 논문게재료, 학술대회 참가경비 지원 등의 연구 지원 사업과 비슷한 사업 등과 함께 대학회계 지원 사업이 있다. 충남대 산학협력단 내에서 대학회계 지원 사업을 통해서 학내 자체연구를 지원하고, 우수논문게재 및 입상지도에 대한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논문게재장려금을 산학협력단회계로 변경 가능할 경우 현재 우리 대학 교연비의 논문게재장려금 8억원을 공통 성과, 교내 연구비 등 다른 연구 진흥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

III. 연구역량강화 사례분석: 인적 연구환경 개선 및 강화 중심으로

III.1. 학부생 대상 사례

III.1.1. 사례 분석의 취지와 목적

학부생 연구역량강화 사례 분석의 취지는 국내 주요 국립대학의 학부생 연구역량 강화 실태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사례 분석의 목적은 우리 대학의 학부생 연구역량강화 및 진학률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데 있다. 크게 (1)학석사 연계과정과 (2)학부생 연구 참여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III.1.2. 학석사 연계과정 사례

학석사 연계과정은 인적 연구환경 강화의 목적으로 다수의 대학에서 활용되고 있는 주요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2023년 1학기 혹은 2학기의 학석사 연계과정 공지 사항 등 문서로 확인 가능한 국내 국립대학교의 학석사연계과정 지원시기, 지원자격(평점), 혜택 등을 다음과 같이 조사하였다 (표 III-1). 큰 특징이 없는 사례는 제외하고 강릉원주대학교를 포함하여 총 12개 대학의 사례를 정리하였다.

1) 지원자격 (시기)

특정한 시기(예: 5학기 이상 7학기 이하)에만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있는 반면, 일부 대학(군산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충남대학교, 한경대학교)의 경우 최소 이수학기에 대한 기준만 있고 지원 시기에 대한 별도의 제한이 없다. 한 예로 충남대학교는 2021년 8월 27일에 “수업연한의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지원할 수 없다.”는 조항을 삭제하여 4학기 이수 조건만 충족하면 학석사 연계과정에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가능 시기를 확대하였다.

충남대학교를 포함하여 최소 이수학기에 대한 기준만 있는 사례 대부분 4학기 이수자 혹은 등록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전북대학교의 경우 파격적으로 2학기 이수자 이상이 대상이다.

〈표 III-1〉 주요 국립대학교 별 학석사 연계과정 현황

학교명	지원자격 (시기)	지원자격 (평균)	혜택
강릉원주대	5학기 이수자	3.5/4.5	- 대학원 입학시험 면제 - 학부과정 장학금 배정 시 우선권 부여
강원대	5학기이상~7학기 이하 등록자	3.2/4.5	- 대학원 입학시험 면제 - 학사과정 졸업논문 및 졸업시험 면제 - 학부과정 장학금 지급 (최대 2개 학기) - 석사과정 입학 시 입학금+수업료 일부 지급
공주대	4~6학기 이수자	3.0/4.5 (직전2개학기)	- 대학원 입학시험 면제 - 학사과정 졸업논문 또는 졸업시험 면제 - 대학원 입학금 면제
군산대	5학기이상 이수자	3.0/4.5	- 무시험 서류전형으로 우선 선발 - 학업장려금 월 50만원 지급 (최대 3개 학기)
부경대	조기졸업트랙: 4학기이상 ~7학기이내 정규졸업트랙: 4학기이상	3.0/4.5 (3.0미만 시 학부(과)장 승인필요)	- 학사과정: 등록금 전액지원 (최대 4개학기), 학업보조비 1인 100만원 이상 (1회) - 석사과정: 석사과정 입학금 전액 지원, 연구수업조교장학금 등록금 전액 지원
부산대	4학기이상~7학기이내	3.0/4.5	- 무시험 특별전형 선발 - 학사과정 졸업논문 또는 졸업시험 면제 - 석사과정(3학기) 중 2,3학기 등록금 전액
서울과기대	4~6학기 이수자	3.4/4.5	- 창업형 연계과정 (제학 중 매출 500만 이상, 지정 교과목 이수 등)
안동대	5학기이상 이수자	3.0/4.5 3.3/4.5 (직전2개학기)	- 대학원 입학시험 면제
전남대	4학기이상 이수자	3.0/4.5	- 무시험 특별전형 선발 - 대학원 수업료 일부 면제 (최대 3개 학기) - 학사과정 졸업논문 및 시험 면제 가능
전북대	2학기이상 이수자	3.0/4.5	- 무시험 특별전형 선발 - 대학원 입학금 면제 가능 - 학사과정 졸업논문 및 시험 면제 가능
충남대	4학기이상 이수자	3.5/4.5	- 대학원 입학시험 면제 - 학사과정: 학업장려금 (150만/학기, 최대 3학기, 3.75 이상) - 석사과정: 등록금 전액 (최대 3학기)
한경대	4학기이상 이수자	3.3/4.5	- 장학금 지급 (학과 연구지원 근무 필수/최저지급 기준/방학 제외)

2) 지원자격 (평점)

지원가능 평점은 대부분 4.5만점 기준 3.0~3.5에 분포되어 있다. 지원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평점 기준을 낮추는 경향이 있다. 한 예로, 강원대학교는 2021학년도 2학기 지원까지는 3.5/4.5 기준이었으나 2022학년도 1학기 지원자부터는 3.2/4.5로 변경되었다.

또한 전 학년 평균평점으로 기준을 삼는 경우가 일반적이거나, 지원 시기를 기준으로 직전 2개 학기의 평점을 기준으로 사용하거나(공주대학교), 전 학년 평균평점과 지원 시기 기준 직전 2개 학기 평점을 모두 기준으로 삼는 사례(안동대학교)도 있다. 직전 2개 학기의 평점을 기준으로 사용할 경우, 1~2학년 때는 평점 관리를 잘하지 못하다 이후 학업에 몰두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진학을 독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한다.

3) 혜택

대부분의 국립대학의 학석사 연계과정 지원 시 공통적으로 대학원 입학평가 시 시험을 면제해주거나 서류평가로만 진행하며, 학사과정 졸업논문 또는 졸업시험을 면제해주고 있다. 금전적인 혜택의 경우 대학원 입학금 면제에 그치는 경우가 많으나, 일부 대학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장학금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크게 학부과정 장학금과 석사과정 장학금 혜택으로 구분될 수 있다.

학부과정 장학금은 강원대학교, 부경대학교, 충남대학교의 3개 대학교에서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강원대학교는 ‘미래석사 장려 장학금’의 이름으로 학석사 연계과정생 전원에게 최대 2개 학기 동안 생활비 200만원을 지원한다. 부경대학교에서는 최대 4개 학기 동안 학사과정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며, 이외에도 학업보조비 명목으로 1회에 한하여 1인 100만원 이상 지원한다. 충남대학교는 학업장려금 명목으로 최대 3학기 까지 학기당 150만원을 지원한다.

앞서 언급했듯, 석사과정 장학금은 대부분 입학금 면제 형태로 제공하고 있으나, 강원대학교, 군산대학교, 부산대학교, 충남대학교, 한경대학교 5개 대학은 상대적으로 석사과정 장학금의 규모가 크고 수혜 기간이 길다. 강원대학교는 석사과정 입학 시 입학금 면제 뿐만 아니라 수업료 일부를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군산대학교는 최대 3개 학기까지 학업장려금의 명목으로 월 50만원 씩 지급한다. 충남대학교는 등록금을 최대 3학기까지 지원하고, 부산대학교 또한 마찬가지로 등록금을 지원하나 2~3학기에만 해당 된다. 한경대학교의 경우 학과 연구지원 근무를 필수로 하여 최저시급 기준으로 장학금을 지급한다.

금전적인 혜택 외에 학석사 연계과정의 형태적인 측면에서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창업형 연계과정을 별도로 운영하여, 재학 중 매출 500만원 이상, 창업 관련 지정 교과목 이수 등을 필수로 하는 과정이다. 창업이 특화된 학과에게 필요한 학석사 연계과정의 형태인 것으로 판단된다.

III.1.3. 학부생 연구 참여 사례

우수 인재의 진학을 향상 및 대학원 인적 연구환경 강화를 목적으로 학부과정 동안 연구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프로그램이다. 주요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부생 연구 참여 유도 프로그램 사례를 조사하기 위하여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성신여자대학교, 단국대학교, 서강대학교, 국민대학교 4개 학교 사례를 선정하였다.

1) 성신여자대학교: 학부생 연구 참여 프로그램

성신여자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연구영역 사업 중 하나로 전공 지도교수가 수행하고 있는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다. 학부생의 진로 탐색 도모 및 기본 연구역량 강화 유도를 목표로 한다 (표 III-2).

학기 중 2개월 동안 진행되며, 연구비 30만원과 장학금 80만원을 지급한다. 타 장학금과 중복수혜가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표 III-2〉 성신여자대학교 학부생 연구 참여 프로그램 개요 (2023년 1학기 기준)

신청자격	- 지도교수 추천을 받은 자 (지도교수 별 최대 3인 이내) - 4학기~7학기 등록 정규 학부 재학생 (휴학생, 졸업생, 졸업예정자 지원 불가) - 학부생 연구 참여 프로그램에 참여이력이 없는 자
지원기간 및 금액	- 2023학년도 1학기 중 2개월 (2023.6.5.~2023.8.6.) - 연구비 30만원+교내장학금 80만원 (타 장학금과 중복수혜 가능)
선발규모 및 방법	- 60명 - 선발배점: 전공적합성(25) + 연구계획 충실성(25) + 연구목표 명확성(25) + 연구내용 창의성(25)
의무사항(필수)	- 사업종료 후 결과보고서 및 소논문 제출

2) 단국대학교: 학부생 연구트랙제 지원사업

단국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연구영역 사업 중 하나로 교내 연구기관(부설 및 일반연구소 등)의 인적 지원을 통한 우수 연구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다 (표 III-3). 3개 학년 이상 재학 중인 학부생을 대상으로 하여 대학원 진학과 시기적으로 밀접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우수 인력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다양한 학내 연구기관과 연계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교내 연구기관 활성화가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2023년 1학기 기준, 학부생 연구트랙제 신청대상 연구소에는 단국대학교 내 부설연구소 63곳과 일반연구소 31곳이 포함되어 있다.

〈표 III-3〉 단국대학교 학부생 연구트랙제 지원사업 개요 (2023년 1학기 기준)

신청자격	- 교내 연구기관의 소장이 추천한 학부생 (연구기관별 1~2명 가능) - 3개 학년 이상 재학 중인 학부생 - 2023-1학기 등록 학부생 - 휴학 및 학기초과자, 수업료 전액 장학생은 선발 제외
지원기간 및 금액	- 2023학년도 1학기 (2023.3.1.~2023.8.31.) - 학부생 연구원 1인당 장학금 100만원
선발규모 및 방법	- 20명 - 선발 배점: 연구소 평가(30%) + 학부생 성적(30%) + 멘토 대학원생(20%) + 사업계획서(20%) + 추가가산점(10%)
의무사항(필수)	- 사업종료 후 결과보고서 제출 (2023년 9월 중) - 해당 학부생은 공동으로 산출한 연구 실적에 표시되어야 함

3) 서강대학교: 학부연구생 연구 활동 지원 프로그램

서강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연구영역 사업 중 연구기반 학부 교육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다 (표 III-4). 연구학점이 부여되는 정규교과목 수강생을 대상으로 연구활동 장학금을 지원하여 학부 커리큘럼에 연구기반 교과목 포함을 확대시키는 역할을 한다.

3~4학년 학생들의 연구 활동을 촉진시킨다는 점에서 캡스톤디자인 수업과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 다만, 캡스톤디자인 수업은 산업체에서 실제 필요로 하는 능력 함양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서강대학교의 학부연구생 연구 활동 지원 프로그램은 보다 학술적인 능력 함양에 목표를 두고 있어 대학원 진학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조사한 4개 대학의 사례 중 1인당 지원금액이 1개학기 30만원으로 가장 적으나, 학점이 인정되는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

〈표 III-4〉 서강대학교 학부생 연구 참여 프로그램 개요 (2023년 1학기 기준)

신청자격	- 교내 연구소나 교원이 수행하고 있는 연구 프로젝트 등에 학부생이 학부연구생 등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 연구참여 교과목(연구학점이 부여되는 정규 교과목)을 수강중인 학부생 - 캡스톤디자인 교과목 지원 제한
지원기간 및 금액	- 2023학년도 1학기 - 1인당 30만원 (장학금)
의무사항(필수)	- 결과보고서 제출

4) 국민대학교: 연구실 인턴십 및 UROP

국민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의 학부생 연구지원 일환으로 UROP과 연구실 인턴십의 2가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국민대학교 연구실 인턴십은 우수한 학부생에게 방학 중 연구실 인턴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하여 대학원 진학 등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표 III-5). 초기에는 이공계 3~4학년을 대상으로만 운영되다 현재는 본교 재학생 전체로 확대되었다.

신규 지원자는 외부연구과제 참여율이 60% 미만인 경우만 신청 가능하며, 기존 참여자도 다시 신청 가능하지만 외부연구과제 참여가 없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대상자 선발 시 타 학과 참여자에 대한 가점이 부여되어 융합연구 및 교육에 대한 독려가 돋보인다. 예를 들어 A학과의 학생이 B학과 교수 연구실에서 인턴십을 할 경우 가점을 부여하는 형식이다. 또한 인턴십 종료 후 산학협력단장 명의의 수료증이 발급되고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우수성과를 시상하여 참여자들의 성취감을 고양시킨다는 점에서 특징을 띈다.

〈표 III-5〉 국민대학교 연구실 인턴십 개요 (2023년 하계방학 기준)

신청자격	- 재학생 (2023-1학기 재학 기준) - 교수 1인당 1명 추천가능 - 2023.6.1. 기준 외부연구과제 총 참여율 60% 미만인 자 - 동 프로그램 수료자 또한 지원 가능하나 2023.6.1. 기준 참여 연구과제가 없는 자 - 인턴십 수행 기간 중 재학 신분 유지
지원기간 및 금액	- 2023학년도 하계방학 중 6주 (2023.7.3.~2023.8.11.) - 1인당 60만원
선발규모 및 방법	- 80명 내외 - 지원자 및 지도교수의 프로그램 참여 의지 + 학부생 연구 참여의 연속성 + (가점) 타학과 참여자
의무사항(필수)	- 인턴십 종료 후 7일 이내 출석부 및 결과보고서 제출

국민대학교 UROP은 Undergraduate Research Opportunities Program의 약자로, 연구 참여 및 대학원 진학에 관심 있는 학부생에게 방학기간 중 팀 단위 연구 프로젝트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다 (표 III-6). 강릉원주대학교의 사제학습동아리나 캡스톤디자인과 유사한 형식으로 진행되나 연구 과제 유형이 시제품/아이디어 개발/소프트웨어 개발/논문발표의 4가지로 구분되어 있고 지원규모가 1팀당 100만원으로 비교적 큰 편이어서 연구 참여 및 학술활동 수행에 더 유리한 구성이다.

〈표 III-6〉 국민대학교 UROP 개요 (2023년 하계방학 기준)

신청자격	- 학부생 연구팀 (학부생 4명 이상 및 지도교수 필수) - 연구 종료시점까지 재학생 신분 유지 필수
지원기간 및 금액	- 2023학년도 하계방학 중 6주 (2023.7.3.~2023.8.11.) - 1팀 당 재료비 등의 실험실습비 100만원 이내
선발규모 및 방법	- 30팀 - 선발배점: 과제목표의 명확성(30)+과제내용의 창의성 및 차별성(35)+과제방법의 구체성 및 적절성(35)+산학연 연계(가점 20)
의무사항(필수)	- 사업종료 후 결과보고서 제출

III.1.4. 사례 분석 정리

1) 학석사 연계과정 사례분석 소결

강릉원주대학교의 경우 5학기 이수자에 한하여 특정 시기에만 신청 가능하고 지원평점 또한 3.5/4.5로 타 대학에 비해 낮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학석사 연계과정 지원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지원 기준 완화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대학원 진학을 장려할 수 있도록 학석사 연계과정 지원 시 부여되는 혜택 확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학부과정 장학금 배정 시 우선권이 부여되지만 이보다 더 적극적인 장학금 지급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학석사 연계과정 이탈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면, 우선적으로 석사과정 장학금에 대한 우선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2) 학부생 연구 참여 사례분석 소결

단국대학교 사례처럼 교내 연구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고려하여 학부생 대학원 진학을 제고 뿐만 아니라 교내 연구기관 활성화를 도모하는 방안 마련이 가능하다.

또한 학술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학부생 1인 대상 연구 참여 지원 프로그램 개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강릉원주대학교에도 캡스톤디자인, 사제학습동아리 등 유사한 프로그램이 존재하나, 팀 단위 활동비에 한정되어 지원되는 형태이고, 그 내용 또한 범위가 넓다. 학술활동에 오롯이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이 부재하다. 더 나아가 국민대학교 사례와 같이 프로그램 이수 완료 시 산학협력단장 명의의 수료증 발급, 우수성과 시상 등 해당 프로그램의 무게감과 중요도를 높일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단, 학부생 연구 참여 프로그램 개발 시, 단국대학교 사례와 같이 수업료 전액 장학생 제외 등의 기준 마련에 대해서는 강릉원주대학교 내 학부생 장학금 수혜 비중 등 상황에 맞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III.2. 대학원생 대상 사례

III.2.1. 사례 분석의 취지와 목적

대학원생 연구역량강화 사례 분석의 취지는 국내 주요 국립대학의 인문·사회분야 대학원 재학생 및 수료생들의 연구활동 및 장학금 지원 실태 파악하기 위함이다. 본 사례 분석의 목적은 이러한 사례 분석을 통해 향후 우리 대학의 학문후속세대의 연구활동 지원 및 연구력 향상을 강화하는 방법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III.2.2. 학술연구 유도 및 장려 사례

우리 대학의 대학원생 연구역량강화를 평가하기 위한 타 대학 사례로서 국립대학 중 경북대, 부산대, 안동대, 한경대 4곳의 여러 지원 프로그램과 지역연구기관인 전북학연구센터의 지원사례를 선정하였다.

III.2.2.1. 경북대학교

○ 대학원생 우수논문 장려금 지원

이 지원 사업의 목적은 대학원 경쟁력 제고 및 연구중심대학 기반 조성, 우수논문 장려금 지원으로 신진연구자들의 연구 동기 부여 및 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사업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이 사업의 대략적 특징은 학문 분야를 ‘기초보호학문 및 특화분야’와 ‘그 외 분야’로 분류하여 구별 지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여기에서 기초보호학문 및 특화분야에 해당하는 학문을 경북대 내 소재한 단과대학별로 분류하면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예술대학(이상 기초보호학문)과 융합학부, 경상대학, 농업생명과학대학(인문), 사범대학, 행정학부, 자율전공(인문), 공과대학, IT대학, 농업생명과학대학(자연), 생활과학대학, 자율전공학부(자연), 생태환경대학, 과학기술대학(이상 특화학문)이 있다. 그 외의 학문 분야는 ‘그 외 분야’로 분류되어 별도의 지원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표 III-7〉 경북대학교 우수논문 장려금 지원 개요(2022년 기준)

신청자격	- 일반대학원 재학생(석사, 박사과정) 중 당해 논문게재 논문 게재 및 학술발표 실적이 우수한 학생
지원기간 및 금액	- 매년 말(12월) - 기초보호학문 및 특화학문 분야: SCIE급 1,000,000/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400,000 - 그 외 분야: SCIE급 700,000/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200,000 (총 137,500,000원)
선발규모 및 방법	- 인당 논문 3편 이내 지원 가능 - 신청논문 제출 후 자격요건 검토 - 장려금 신청금액이 예산 초과 시 비례 감액하여 지급

III.2.2.2. 부산대학교

○ 대학원생 논문게재장려금 지원사업

부산대 ‘대학원생 논문게재장려금 지원사업’의 주목적은 국내외 우수 학술지에 연구 논문을 게재하도록 대학원생의 연구 의욕을 고취하는 한편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사업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표 III-8〉 부산대학교 대학원생 논문게재장려금 지원사업 개요(2022년 기준)

신청자격	- 일반대학원 재학생, 수료 후 2년 이내 수료생 포함
지원기간 및 금액	- 매년 초 - 인문사회 및 예체능 분야: SCIE급 1,000,000/ SCOPUS 800,000/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500,000/ 등재후보지 300,000 - 자연, 공학, 의학 분야: SCIE급 700,000/ SCOPUS 500,000 (총 60,000,000원, 대학회계)
선발규모 및 방법	- 인당 최고 한도액 2,000,000 제한 - 대상자가 신청서 및 신청서류 제출

○ 박사 후 연수과정(Post-Doc) 지원사업

이 지원사업의 취지와 목적은 학내 박사급 연구인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박사 후 연수과정을 마련하여 선정된 연구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마련함으로써 추후 우수한 학문후속세대를 양성 및 확보하기 위함이다. 사업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표 III-9〉 부산대학교 박사 후 연수과정(Post-Doc) 지원사업 개요(2023년 기준)

신청자격	- 공통사항: 최근 3년 내 주저자로 한국연구재단등재지 이상 논문 2편 이상(연수지도교수 및 연수자 공통) - 최근 10년 이내 국내외 대학 박사학위 취득자 - 연수기간 중 타과제 참여 가능
지원기간 및 금액	- 매해 3월 1일 ~ 이듬 해 2월 28일 - 인당 연 3,550만원 지원(4대보험 및 퇴직금 포함)
선발규모 및 방법	- 인당 최고 한도액 2,000,000 제한 - 연수지도교수가 신청서 제출 - 심사를 거쳐 연수자 선정 - 학문단위에 따라 8개 분야로 묶어 심사 - 연수기간 종료 후 1년 이내에 논문 1편 이상 제출

이 사업의 특징은 대학 연구처가 학문분야를 계열별로 8개로 분류하여 기초학문 분야에도 일정한 비율로 연수자를 선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부산대는 이 사업에 기선정된 연수지도교수와 연수자의 연구 실적이 연수 기간 중 각 3편 이상일 경우 연속지원도 가능하게 함으로써 우수한 연구성과물을 내놓는 전임교수 및 연수자에게 지속적인 연구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III.2.2.3. 안동대학교

○ 우수대학원생 선발 지원 프로그램

안동대학교의 ‘우수대학원생 선발 지원 프로그램’ 사업의 목적은 대학원생의 학술연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함이며 이를 위해 논문발표 및 학술논문 게재 실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일정한 금액을 상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프로그램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표 III-10〉 안동대학교 우수 대학원생 선발 개요(2022년 기준)

신청자격	- 일반대학원 재학생(석사, 박사과정) 중 당해 논문게재 논문 게재 및 학술발표 실적이 우수한 학생
지원기간 및 금액	- 매년 초 - 최우수상 1,500,000/ 우수상 1,000,000/ 장려상 500,000 (총 15,000,000원)

선발규모 및 방법	- 20명(인문사회, 이공계 각 최우수상 1명, 우수상 3명, 장려상 6명 선발) - 해당사항 있는 대학원생 중 소속학과 지도교수 추천을 받은 자 - 연구실적물과 성적을 합산하여 순위 결정
점수 배점	- 국제전문학술지, 국외전문학술지, 국내전문학술지, 교내학술지로 구분하여 차등 배점 - 성적은 4.0이상 만점 기준으로 3.0과 2.0이상씩 각 점수 차등 배점

이 사업의 특징은 안동대가 국립대학육성사업비에서 재원을 마련하여 대학 내 후속학문세대의 학문 활동 역량을 제고하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III.2.2.4. 한경대학교

○ 대학원 우수논문 포상 지원

한경대 ‘대학원 우수논문 포상 지원’ 사업의 목적은 학내 대학원생의 연구력을 고취함은 물론 우수논문 게재를 장려하기 위함이다. 사업의 포상 지침에 의하면, 국제저명학술지 게재 논문 저자가 더 높은 점수를 획득할 가능성이 높기에 인문사회 분야보다는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포상의 기회가 쏠릴 가능성 높다는 점이다. 사업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표 III-11> 한경대학교 대학원 우수논문 포상 지원사업 개요

신청자격	- 한경대 소속 대학원생
지원기간 및 금액	- 매해 3월 ~ 이듬 해 2월 - 국제저명학술지 IF 합산값 상위 대학원생 2명 - 국제저명학술지 IF 점수 상위 대학원생 2명 - 국제 및 국내 공인학술지 게재 총 논문수 상위 대학원생 3명
선발방법	- 국제저명학술지 게재 논문은 IF 점수의 합산순위가 높은 순위 - 국제저명학술지 게재 논문의 IF 점수가 높은 순위 - 국제 및 국내 공인학술지 게재 논문수가 많은 순위

III.2.2.5. 전북학연구센터

○ 전북학연구센터 우수학위논문 지원사업

전라북도 내에 소재한 전북학연구센터는 지역 연구를 중점적으로 수행하는 연구기관으로 매년 전라북도 혹은 관내 시군의 역사와 문화 관련 주제를 다룬 석박사 학위논문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표 III-12〉 전북학연구센터 우수학위논문 지원사업 개요(2022년 기준)

신청자격	- 전북 도내 대학교에서 석박사 학위논문을 전북관련으로 집필한 연구자
지원기간 및 선발규모	- 매해 8월 - 석사논문 2편, 인당 2,000,000원 - 박사논문 1편, 인당 3,000,000원
선발방법	- 선정자는 계약서 작성 후 50% 상금 선지급 - 최종원고 제출 후 50% 잔액 지불

이 사업에 선정된 논문은 『전북학연구』에 게재되고, 특히 지역의 연구기관이 해당 지역의 인문사회 관련 주제 연구자들의 학위논문 지원사업으로써 지역의 현안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III.2.3. 대학원생 장학금 사례

국내 각 대학들은 학내 재학중인 대학원생의 연구 지속을 꾀하기 위한 다양한 장학금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는 특기할만한 장학금 사례 2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III.2.3.1. 순천대학교

○ 연구지원 장학금

이 장학금의 목적은 순천대학교 내의 연구실 및 실험실의 lab manager 지원을 통해 우수연구자를 유인하고 연구자들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표 III-13〉 순천대학교 연구지원 장학금 사업개요(2021년 기준)

지원 대상	- 석박사 과정생 혹은 수료후 등록생 중 전일제 대학원생 - 학석사 연계과정으로 석사과정 입학자 우대 - 이수 학기의 평점이 4.0 이상인 자
지원기간 및 선발규모	- 매해 11월 - 인당 1,000,000원, 총 40명 지원
선발방법	- 지원자격 적격여부 심사 후 결정

○ 연구보조장학금 지원사업 및 학생능력향상지원사업비

이 사업은 포스코(POSCO)가 지역 국립대학인 순천대학교 공과대학에 재원을 기부하여 세운 재단이 지원하는 장학금 프로그램으로 그 목적은 사업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먼저 ‘연구보조장학금 지원사업’은 학내 공과대학 전임교원의 연구지원과 학생 실험 및 실습에 투입되는 보조인력을 지원하여 이공계 분야 연구 및 학생 실험실습에 내실을 기하기 위함이다. ‘학생능력향상지원사업’은 공과대학 학생의 능력향상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특정 활동에 한하여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 주로 어학시험 응시료와 자격증 취득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의 지원 대상 역시 세부사업의 내용에 따라 다르다. ‘연구보조장학금 지원사업’은 순천대학교 공과대학 전임교원이 지도하는 학부생 및 일반 대학원생에게 지원되고 ‘학생능력향상지원사업비’는 사업비 지원 항목의 특성에 따라 순천대학교 공과대학 학부생 및 일반 대학원생에게 지원된다.

III.2.3.2. (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 연구인재 역량강화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는 지역 내 미래 산업이나 현안에 관한 과제를 수행하는 지역 연구기관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에게 일정 수준의 인건비 지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표 III-14〉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연구인재 역량강화 프로젝트 사업개요
(2023년 기준)

지원 대상	- 전남 도내 석박사 과정생 - 외부 연구기관과 공동연구(공공연구소, 지자체 출연기관, 기타 민간 연구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된 자
지원기간 및 선발규모	- 2개월~7개월 - 석사과정 시간당 9,620원, 박사과정 시간당 11,445원 지원(일 8시간 주 40시간 이내)
선발방법	- 지원자격 적격여부 심사 후 결정

III.2.4. 사례 분석 정리

이상으로 소개한 각 국립대와 지역 연구기관의 대학원생 연구강화 지원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각 대학 및 기관이 다양한 제도와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대학원생 연구력 향상 및 장학금 지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경북대와 부산대와 같은 지역 거점국립대의 경우, 다양한 재원과 오랜 시간 축적된 행정적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학내 후학 양성에 깊은 관심을 쏟고 있다. 안동대와 한경대, 순천대와 같은 지역 중심국립대 역시 비록 한정된 재원 내에서도나마 교내 대학원생에 대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기할 만한 사실은 지역에 따라 다양한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 보고서가 주목한 지역은 전라도이며 이 지역은 지역사회의 연구기관 및 연구소가 지역 현안 및 지역사업과 연계된 다양한 후학 양성 목적의 학술연구장려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분석에 비추어 볼 때, 우리 학교가 있는 강원특별자치도와 지자체 역시 지역의 연구기관을 적극 활용하여 우리 학교를 비롯한 지역 내 고등교육기관에 소속된 신진연구자를 여러 방면에서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 소재 강원학연구센터가 지역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는 전문 연구기관으로서 그 정체성을 확고히 다지는 상황에서도 현재 대학원생 및 후학 양성을 위한 학술연구 장려를 적극 모색하지 못하고 있어 보인다. 향후 교육기관과 지역 연구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내 연구 전문가 양성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III.3. 교수 대상 사례

III.3.1. 취지와 목적

교수 대상 사례 분석의 취지는 국내 주요 국립대학의 전임교원의 연구활동 및 연구실적 지원 실태를 파악하여 우리 대학의 전임교원의 연구활동 지원 및 연구력 향상을 강화하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III.3.2. 그룹연구(혹은 학제간연구) 활성화 사례

III.3.2.1. 부산대학교

○ 연구회지원사업

부산대학교에서 지원하는 연구회지원사업의 취지는 학내 전임연구자들의 대형과제 선정률 제고를 위해 장기적인 과제 기획을 통한 경쟁력 있는 연구팀을 구성하고 과제 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 사업의 목적은 중장기 발전계획에 맞춰 학제간 융합연구 분위기 확산 및 대형 융합연구과제 추진 연구그룹을 육성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 학교에 교수 연구회지원사업이 존재하고 있기에, 부산대학교의 사례를 통해 좀 더 실질적인 과제 기획서 작성 및 수주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III-15〉 부산대학교 연구회지원사업 개요(2023년 상반기 기준)

지원분야	〈공모 과제〉 ○ 지정연구회 - 본교 전임교원 3인 이상으로 구성 - 주관연구책임자를 본교 전임교원으로 하는 사업을 1년 이내 신청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서를 기획·작성하는 연구그룹 ○ 학제간연구회 (유형 I) - 연구분야가 다른 본교 전임교원 3인 이상으로 구성 - 학제간 창의적 융합 연구를 통하여 도출한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1년 이내 사업신청을 준비하는 연구그룹 ○ 학제간연구회 (유형 II) - 연구분야가 다른 본교 전임교원 중 신진연구자(임용 5년 이내) 3인 이상으로 구성 - 학제간 창의적 융합 연구를 통하여 도출한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2년 이내 사업신청을 준비하는 연구그룹
------	---

	<비공모 과제> ○ 특별연구회 - 연구처장이 특별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그룹 - 본교 전임교원 3인 이상으로 구성			
지원기간 및 규모	구분	지원규모	지원기간	비고
	지정연구회	500만원 이내	1년	
	학제간 연구회 I	500만원 이내	1년	
	학제간 연구회 II	1차 년도 : 500만원 이내/연 2차 년도 : 300만원 이내/연	2년 (1+1)	·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2차 년도 계속 지원여부 결정
	특별연구회	500만원 이내	1년	
결과보고	○ 결과물 제출 - 지정·학제간연구회 I : 지원 종료 후 1개월 이내 목표사업처 접수증 및 사업처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제출 - 학제간연구회 II · 1차 년도 : 지원 종료 전 1개월 이내 결과보고서(1차 년도) 제출 · 2차 년도 : 지원 종료 후 1개월 이내 목표사업처 접수증 및 사업처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제출			

부산대 연구회 지원사업은 실제 국가단위 과제 수주를 위한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연구회 지원사업 결과 보고 역시 실제 사업 추진 계획서를 제출함으로써 같음한다. 이로써 이 사업은 실제 과제 수주에 필요한 학문 간 논의 및 성과물 도출을 기획 단계에서부터 지원한다. 게다가 이 사업은 학제 간 연구회 지원에 중점을 두어 장기적인 안목에서 융합연구 주제 발굴 및 연구그룹 육성을 기대할 수 있다.

○ SAM분야 진흥연구회 지원 사업

이 사업의 목적은 학제 간 융합형 연구모임을 통해 ‘SAM’ 분야 진흥을 위한 창의적 융합연구주제 발굴하여 향후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계 및 성과 도출을 위함이다. 사업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표 III-16> 부산대학교 SAM분야 진흥연구회 지원 사업 개요(2021년 기준)

지원분야	기초보호학문분야 (SAM분야) - 대상 학문분야 :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지원기간 및 규모	과제당 5,000,000원, 3과제 이내 선정

지원대상	- 연구 책임자: SAM 분야 전임교원 1인 - 참여 연구원: 본교 전임교원 2인 이상으로 구성/ 전 학문분야 소속 전임교원 및 외부 전문가 포함 - 연구모임 당 3명 이상으로 팀 구성
------	---

이 사업에서 주목할 점은 부산대학교가 기초학문분야를 ‘SAM’ 분야로 분류하여 해당 학문분야 진흥을 위한 다 학제 간 창의적 융합연구 주제 발굴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지역거점 국립대로서 도출된 연구과제가 목표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연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 KNU10 거점국립대학 공동연구 지원사업

이 사업의 목적은 특정 연구주제를 중심으로 융·복합 연구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타 거점국립대학 연구시설과의 공동연구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이 사업에서 부산대학교는 타 거점국립대와 학문 연구성과 공유를 위한 유기적 연구 과제 지원에 일정 수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통해 실제 연구의 성과 여부를 떠나 타 연구기관과 공동연구 수행 의지를 보여주는 것만으로 학내 학제 간 연구 분위기 조성에 적절한 역할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를 위한 사업 개요는 다음과 같다.

〈표 III-17〉 부산대학교 KNU10 거점국립대학 공동연구 지원사업 개요(2021년 기준)

지원분야	전 학문분야
지원기간 및 규모	과제당 30,000,000원(1차년도 기준), 4과제 이내 선정
지원대상	- 부산대 연구시설 소속 전임교원이 타 거점국립대 연구시설 전임교원과 공동연구팀 구성 - 팀별 연구책임자 1명, 부산대 소속 참여연구원 1명, 타 거점국립대 소속 교원 2명

III.3.3. 교수 연구 장려 사례

III.3.3.1. 부산대학교

○ 우수논문 게재 장려금

이 지원사업의 목적은 국내외 우수 학술지에 학술연구논문을 게재하도록 권장함으로써 교직원의 연구능력과 학문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연구의욕을 고취하여 우수 논문의 실적(양적 및 질적) 향상을 통해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이다.

〈표 III-18〉 부산대학교 우수논문 게재 장려금 개요(2022년 기준)

지원분야	기초보호학문분야 (SAM분야) - 대상 학문분야 :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지원기간 및 규모	인당 최대 7,000,000원 한도
지원대상	- 전임교원 인당 논문 1편 지원 원칙 - 인문사회, 예체능 계열: SCOPUS 및 한국연구재단등재학술지 - 계열 불문: SSCI, A&HCI, SCIE

III.3.3.2. 전남도

○ 전남도 연구개발기획사업

이 사업의 목적은 R&D 관련 국고확보 및 인프라 유치, 정책개발 등 과제 기획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표 III-19〉 전남도 연구개발기획사업 개요(2023년 기준)

지원분야	기초보호학문분야 (SAM분야) - 대상 학문분야 :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지원기간 및 규모	과제별 10,000,000 ~ 100,000,000원 내외
지원대상	- 전라남도 내 실과, 대학, 기관을 대상으로 수요조사 진행 - 대학, 기관은 전남도 실과와 사전 협의하여 전남도 실과를 통해 제출 - 정부 주요정책과 부합하는 지역주력산업 및 신성장산업 관련 과제 기획

전라남도의 경우, 전남도 연구바이오산업과를 통한 국비 확보 과제 기획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한 사업 기획 지원 및 국비 유입 모색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III.3.3.3. 전북학연구센터

○ 전북학 학술연구지원 사업

전북학연구센터에서 지원하는 학술연구지원 사업의 목적은 전북 지역을 주제로 한 우수한 학술연구와 저술 및 번역사업을 공개 모집하고 지원하여 전북학 연구의 진흥과 자료 축적하기 위함이다.

〈표 III-20〉 전북학연구센터 전북학 학술연구지원 사업 개요(2023년 기준)

지원분야	- 기획주제와 자유주제 논문 지원 - 전북학 관련 저술 및 자료 분석
지원기간 및 규모	- 기획주제: 4개 과제 편당 3,000,000원 - 자유주제: 5개 과제 편당 3,000,000원 - 전북학 관련 저술 및 자료 분석: 3개 과제 과제당 8,000,000원

III.3.4. 사례 분석 정리

부산대를 비롯한 규모가 큰 거점국립대는 교원의 연구력 강화에 중점을 두어 보다 다양한 연구성과 활성화 지원 프로그램 마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거점국립대와 같은 연구중심 대학은 상대적으로 연구재정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는 인문사회계열 학문분야를 따로 구별하여 연구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게다가, 타 거점국립대와의 공동연구 추진을 위한 지원제도를 수립하여 학제 간 연구의 기초를 닦기 위한 노력을 벌이고 있다.

거점국립대보다 규모가 작은 지역중심대학은 한정된 재원과 행정적 역량 내에서 교내 연구 지원 방안 다각화를 모색할뿐만 아니라 지역에 산재한 주요 연구기관과의 긴밀한 협업과 과제 수주와 같은 실질적 연구비 확보를 위한 프로그램 마련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례 분석의 다른 시사점은 지역사회 연구기관과 대학과의 연구 지원 사업 연계이

다. 특히, 이 보고서에서 사례를 든 전라도 등 지역별로 지자체 산하 연구기관의 후학 양성 연구력 강화 지원 및 학술논문 지원사업의 존재는 지자체의 의지 여부에 따라 지역 대학 및 연구소와 협업하며 다양한 과제 수주 및 연구 활성화를 위한 방편이 다양하게 모색될 수 있다는 점을 말해 준다.

IV. 전임교원 설문조사

본 장에서는 우리 대학의 전임 교원들의 연구에 대한 인식과 역량에 대한 수준 현황을 조사 분석하여 향후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제안에 필요한 자료를 도출하고자 한다. 본 조사 문항은 교내 연구지원제도에 대한 인식수준, 교원 연구역량 강화 상대적 중요도, 타 국립대학 대비 상대적 만족도, 연구 지원제도 및 환경의 불만족 이유,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항 등으로 구성되었다.

IV.1. 조사 응답 개요

본 조사는 구글폼을 활용하여 설문양식을 작성하고, 조사 기간은 8월 24일부터 9월 4일(약 2주간)까지 온라인(<https://forms.gle/YvioHPKrzcLVpCWb8>)을 통해 진행되었다.

조사에 응답한 교원은 총 59명이며 응답율은 15.9%(총 전임교원 371명)로 나타났다. 성별은 남성 44명(74.6%), 여성 15명(25.4%)으로 남성 응답자가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IV-1〉 소속별 성별 응답자 현황

소속 단과대학	남성	여성	총합계
공과대학	9		9
과학기술대학	3		3
보건복지대학	1	6	7
사회과학대학	8		8
산학협력단	2		2
생명과학대학	7	3	10
예술체육대학		2	2
인문대학	2	2	4
자연과학대학	7		7
치과대학	5	2	7
총합계	44	15	59

소속 단과대학별로 생명과학대학 10명(16.9%), 공과대학 9명(15.3%), 사회과학대학 8명(13.6%), 자연과학대학 7명(11.9%), 치과대학 7명(11.9%), 보건복지대학 7명(11.9%), 인문대학 4명(6.8%), 과학기술대학 3명(5.1%), 예술체육대학 2명(3.4%), 산학협력단 2명(3.4%) 순으로 높게 응답하였다. 연령별로 40대 24명(40.7%), 50대 16명(27.1%), 30대 11명(18.6%), 60대 8명(13.6%)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IV-2〉 소속별 연령별 응답자 현황

소속 단과대학	30대	40대	50대	60대	총합계
공과대학	1	3	4	1	9
과학기술대학	1	1	1		3
보건복지대학	1	4	2		7
사회과학대학	1	5	1	1	8
산학협력단				2	2
생명과학대학	1	5	3	1	10
예술체육대학			1	1	2
인문대학	2	1	1		4
자연과학대학	2	2	2	1	7
치과대학	2	3	1	1	7
총합계	11	24	16	8	59

직급별로 “교수” 29명(49.2%), “부교수” 17명(28.8%), “조교수” 13명(22.1%) 등의 순으로 높게 응답하였다.

〈표 IV-3〉 소속별 직급별 응답자 현황

소속 단과대학	교수	부교수	조교수	총합계
공과대학	8		1	9
과학기술대학	1	1	1	3
보건복지대학		5	2	7
사회과학대학	1	5	2	8
산학협력단	2			2
생명과학대학	5	2	3	10
예술체육대학	1	1		2
인문대학	2		2	4
자연과학대학	4	1	2	7
치과대학	5	2		7
총합계	29	17	13	59

근무기간별로 5년 이하 20명(34.5%), 11~20년 이하 15명(25.9%), 6~10년 이하 14명(24.1%), 21~30년 이하 8명(13.8%) 등의 순으로 높게 응답하였다.

〈표 IV-4〉 소속별 근무기간별 응답자 현황

소속 단과대학	11~20년 이하	21~30년 이하	31년 이상	5년 이하	6~10년 이하	총합계
공과대학	5	3		1		9
과학기술대학	1			2		3
보건복지대학				5	2	7
사회과학대학	2			3	3	8
산학협력단				1	1	2
생명과학대학	2	3		4	1	10
예술체육대학					1	1
인문대학	1			2	1	4
자연과학대학	1		1	2	3	7
치과대학	3	2			2	7
총합계	15	8	1	20	14	58

Ⅳ.2. 조사 분석결과

Ⅳ.2.1. 교내 연구지원제도 인식 수준

우리 대학은 교원의 연구 활성화를 위해 아래 <표 Ⅳ-5>와 같이 16개의 연구지원 사항을 정비하여 운영 중에 있다. 이에 우리 대학 교원들을 대상으로 교내 연구지원제도의 중요도와 만족도에 대해 물어보았다.

<표 Ⅳ-5> 우리 대학 교원 연구지원제도 현황

구분	지원사항	주요 내용	비고
1	연구(사업비) 선지원	- 연구(사업)과제 협약 체결 후 지원기관의 연구(사업)비 입금 지연 등으로 연구수행이 어려운 과제 - 산학협력단 자금 운용 범위 내에서 총 연구비의 50%이내 지원(과제당 5천만원 이내)	산학협력단
2	외부 과제(사업) 신청 경비 지원	- 교외 기관(국가기관(출연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 기업 등)에서 지원하는 공모 형태 과제(사업)에 산학협력단을 통해 신청서 또는 제안서를 제출하는 전임교원 - 연구과제(사업) 신청서 작성 및 제출(사업발표자료 포함) 등에 직접 관련되어 사용한 경비	산학협력단
3	신임교원 연구 활동 지원	- 우리 대학 임용 3년 이내인 신규 전임교원 (당해 연도 임용자 포함) - 과제 수주를 위한 준비금 및 연구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 1인당 연 50만원 이내, 최대 3년(3회)까지 지원	산학협력단
4	국제학술지 게재(예정) 논문 지원	- 해당 논문에 명기된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가 우리 대학교 소속이며 신청일 현재 본교에 재직하고 있는 전임교원 - SCIE, SSCI, A&HCI, SCOPUS에 등재된 학술지에 투고 및 게재를 신청할 논문의 교정비 및 학술지 게재에 소요된 비용(논문게재료, 심사료, 투고료 등) 지원 - 연간 1인당 한도액 200만원 범위내에서 편수제한 없이 지원	산학협력단

구 분	지원사항	주요 내용	비고
5	실험실 운영 지원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적용받는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 책임자의 실험실/연구실 - 단, 총 연구비의 15%이상 간접비(기관공통비용)를 징수한 과제에 한하여 지원 - 실험실 운영·연구활동에 실제 필요한 경비 지원	산학협력단
6	연구개발능력성과 급 지원	- 개인 연구과제 중 간접비 실적이 있는 교원 - 국가R&D 연구과제 : 산학협력단이 징수한 전체 간접비 10%범위 내에서 별도의 평가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 - 국가R&D 이외 연구과제 : 간접비 징수금액 X 지급률	산학협력단
7	연구소·센터 활성화 지원금으로 전환	- 연구소 활성화 지원금으로 전환 - 주민세(종업원분) 지원 : 과제대상 급여액 X 0.5%	산학협력단
8	산학협력단 유공 교원 시상	- 산학협력단 유공 교원 시상 - 총장 표창 및 상금 지원	산학협력단
9	IRB 및 IACUC 온 라인 수강 지원	- (재)생명과학연구윤리서재(BIC STUDY) 온라인 교 육 수강비 지원	산학협력단
10	학술연구 용역과제 인지세 및 보증보 험 수수료 지원	- 학술연구 용역과제의 계약 및 연구수행 중 인지세, 보증보험 수수료 등이 발생하는 과제 - 학술연구 연구용역 과제의 계약에 필요한 인지세 지원 - 학술연구 용역과제의 계약 및 연구수행 중 발생하 는 계약 및 선금 보증증권 발행 수수료, 지역개발 공채 수수료 등 지원	산학협력단
11	산학협력단 부설 자 립사업단 지원	- 사업기간 종료 후 자립적으로 운영되는 산학협력 단 부설 사업단 중 평가절차를 거쳐 선정한 우수 자립사업단 지원 - 사업단의 운영 및 자립화를 위한 행재정적 인센티 브 지원, 매년 4월	산학협력단
12	중점연구과제 연구 회 지원	- 우리대학 교원 등으로 구성된 자생적 연구모임 지 원 - 연구회당 200만원 지원	산학협력단

구 분	지원사항	주요 내용	비고
13	특허출원, 등록비 및 유지비 지원	- 특허출원, 등록비 및 유지비 지원	산학협력단
14	학술회의 참가경 비 보조금 지원	- 국내·외 학술회의에 참가하는 본교 교수에게 참가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학술정보 교류를 촉진하고, 연구 활동 및 학술발표 기회를 확대하여 본교 의 학문적 수월성을 제고	교무과
15	대학회계 학술연 구조성비 지원	- 신진교수연구, 일반연구, 특별연구비연구 분야 등 교내 연구비 지원을 통하여 연구역량 및 논문실적을 제고	교무과
16	국제학술지 논문게 재료 보조금 지원	- 본교 교수의 우수한 학술연구논문을 국제학술 지에 게재, 발표토록 지원함으로써 교수 연구 능력 향상과 국제적 학문수준 제고 - 1인당 연간 지원 한도액은 100만원으로 하고, 한도액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지원	교무과

분석결과, 우리 대학 교내 연구지원사항 중 “실험실 운영 지원” (4.51점),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원” (4.25점), “국제학술지 게재(예정) 논문 지원” (4.21점), “국제학술지 논문게재료 보조금 지원” (4.17점), “대학회계 학술연구조성비 지원” (4.14점), “신임교원 연구 활동 지원” (4.03점) 등의 순으로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국제학술지 논문게재료 보조금 지원”, “신임교원 연구활동 지원”, “국제학술지 게재 논문 지원”, “학술회의 참가경비 보조금 지원”,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원”, “대학회계 학술연구조성비 지원” 등의 순으로 우리 대학 교원들의 중요도와 만족도 인식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6〉 우리 대학 연구지원사항의 교원 인식수준(5점 만점)

구 분	중요도	만족도	차이
연구(사업비) 선지원	3.90	3.59	0.31
외부 과제(사업) 신청 경비 지원	3.90	3.59	0.31
신임교원 연구 활동 지원	4.03	3.36	0.68
국제학술지 게재(예정) 논문 지원	4.21	3.14	1.07
실험실 운영 지원	4.51	3.47	1.03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원	4.25	3.55	0.70
연구소 활성화 지원금으로 전환	3.47	3.52	-0.05
산학협력단 유공 교원 시상	3.80	3.41	0.39
IRB 및 IACUC 온라인 수강 지원	3.31	3.19	0.11
학술연구 용역과제 인지세 및 보증보험 수수료 지원	3.31	3.27	0.04
산학협력단 부설 자립사업단 지원	3.69	3.27	0.42
중점연구과제 연구회 지원	3.14	2.92	0.22
특허출원, 등록비 및 유지비 지원	3.31	3.07	0.24
학술회의 참가경비 보조금 지원	3.81	3.53	0.28
대학회계 학술연구조성비 지원	4.14	3.36	0.77
국제학술지 논문게재료 보조금 지원	4.17	3.19	0.98

IV.2.2. 교원 연구역량 중요성에 대한 우리 대학 교원의 인식 수준

앞으로 우리 대학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교원 연구역량 강화가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지의 질문에 대하여 응답자 중 56명(94.9%)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IV-7〉 우리 대학 교원 연구역량 강화 중요성(5점 만점)

구 분	중요하 지 않음	보통	중요	매우 중요	총 응답 수	중요도 평균 점수 (5점 만점)
공과대학			2	7	9	4.8
과학기술대학			1	2	3	4.7
보건복지대학		1		6	7	4.7
사회과학대학	1		2	5	8	4.4
산학협력단			1	1	2	4.5
생명과학대학	1		2	7	10	4.5
예술체육대학				2	2	5.0
인문대학			1	3	4	4.8
자연과학대학				7	7	5.0
치과대학				7	7	5.0
총합계	2	1	9	47	59	4.7

대학의 교육, 연구, 봉사, 산학협력 업무 중 상대적으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에 대한 질문에 “교육”을 “1순위”(50.8%), “2순위”(37.3%), “3순위”(8.5%), “4순위”(3.4%)로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 “연구”의 경우 “1순위”(40.7%), “2순위”(45.8%), “3순위”(11.9%), “4순위”(1.7%)로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응답자들은 우리 대학의 교원 역량에 대해 상대적으로 연구보다 교육을 보다 중요시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IV-8〉 교원 업적별 상대적 우선순위

구 분	교육	연구	봉사	산학협력
1순위	30	24	2	7
2순위	22	27	6	7
3순위	5	7	22	27
4순위	2	1	28	18
총 응답자 수	59	59	58	59

Ⅳ.2.3. 우리 대학 연구지원 및 환경에 대한 상대적 만족도

우리 대학의 교원 연구 지원제도 및 환경은 상대적으로 타 국공립 대학에 비해 만족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매우 불만족” (32.8%), “불만족” (22.4%), “보통” (34.5%)로 나타나 다소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다.

〈표 Ⅳ-9〉 교원 업적별 상대적 우선순위

구 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총 응답 수	만족도 평균 (5점만 점)
공과대학	3	3	3			9	4.00
과학기술대학	1		2			3	3.67
보건복지대학	2	1	4			7	3.71
사회과학대학	2		4	1		7	3.43
산학협력단			2			2	3.00
생명과학대학	4	2	2	1	1	10	3.70
예술체육대학		2				2	4.00
인문대학	1	2	1			4	4.00
자연과학대학	3	3			1	7	4.00
치과대학	3		2	2		7	3.57
총합계	19	13	20	4	2	58	3.74

교원 연구 지원제도 및 환경이 상대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한 이유(복수응답)로 “대학원생 부족 및 미활성화” (47회), “강의 등 교육업무 부담” (31회), “교내 연구지원제도 다양성 부족” (23회), “상대적으로 낮은 연구비 규모” (22회), “국책연구과제 수주를 위한 역량(전문인력, 인프라, 제도 등) 부족” (19회) 등의 순으로 높게 응답하였다.

〈표 IV-10〉 교원 연구지원제도 및 환경의 불만족 이유(복수응답)

구 분	응답 횟수(복수응답)	비중
연구기자재 및 인프라 부족	18	7.4%
지자체 및 지역기업 등의 연구수요 부족	17	7.0%
대학원생 부족 및활 성화	47	19.3%
교내 연구지원제도 다양성 부족	23	9.4%
연구간접비 과다	9	3.7%
연구관리 및 행정업무 수행의 어려움	15	6.1%
상대적으로 낮은 연구비 규모	22	9.0%
지역적 한계로 인한 특정 학문분야로의 연구수요 편중	12	4.9%
봉사, 보직 등의 행정업무 부담	11	4.5%
강의등교육 업무부담	31	12.7%
연구수행 조직 부재	7	2.9%
연구과제 발굴을 위한 교내 지원 부족	9	3.7%
국책 연구과제 수주를 위한 역량(전문인력, 인프라, 제도등) 부족	19	7.8%
연구논문 지원(교정료, 투고료 너무 적음, 1년에 1편 이상의 논문을 쓸 경우 전부 사비로 진행해야 함), 연구논문(impact factor)에 상응하는 성과급	1	0.4%
연구소 활성화 지원금 폐지	1	0.4%
연구수행을 위한 통계패키지 지원 부족, 영어논문지원시스템 부족	1	0.4%
과제수주 활성화를 위한 제도 다양성 부족	1	0.4%
합 계	244	

IV.2.4. 우리 대학 교원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마지막으로 교원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가장 시급한 개선 방안에 대해 전임교원들은 “대학원 석박사 지원 확대(장학금, 우수연구자 지원 등)” (13.5%), “교원 논문 게재장려금 확대 및 다양화” (12.5%), “박사후 과정(Post-doc) 활성화 노력” (9.3%), “학부생 연구 참여제도 확대(학-석박사 연계과정 도입 등)” (7.6%), “교내 연구과제 지원 및 규모 확대(학술연구조성비 등)” (7.3%), “신임교원 대상 연구지원 확대(연구정착금 확대, 강의시수 감면)” (7.3%), “교원 연구업적 평가 기준의 강화” (6.6%), “연구관리 및 행정업무 간소화” (6.6%)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따라서 우리 대학 교원들은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대학원생 및 박사후과정 지원 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연구인력으로 육성·활용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연구과제 발굴을 위한 과제 지원규모의 확대는 물론 신진, 중견 교원의 연구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표 IV-11〉 우리 대학 교원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복수응답)

구 분	응답 횟수(복수응답)	비중
단과대학 내 부속연구소(연구센터) 역할 강화	8	2.8%
대학원 석박사 지원 확대(장학금, 우수연구 등)	39	13.5%
박사후 과정 활성화 노력	27	9.3%
교원논문 게재장려금 확대 및 다양화	36	12.5%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구성원(교원, 대학원생 등)간 연계조직 구성	11	3.8%
교내 연구과제 지원 및 규모 확대(학술연구조성비 등)	21	7.3%
학부생 연구참여 제도 확대(학-석박사 연계과정 도입 등)	22	7.6%
국책 연구과제 수주를 위한 산학협력 및 연구교수 역량 강화	10	3.5%
신임교원 대상 연구지원 확대(연구정착금 확대, 강의시수 감면)	21	7.3%
교원연구 업적평가 기준 강화	19	6.6%
연구관리 및 행정업무 간소화	19	6.6%
연구역량 강화를 대학본부 내 전담조직 수립	8	2.8%
전임교원 참여연구회, 연구소 모임 등 지원 강화	13	4.5%
지자체-지역사회-지역기업과 연계된 후학양성을 위한 학술연구 지원사업	14	4.8%
부설연구소, 연구센터 등 연구원 제도 확대	9	3.1%
다양한 학술 데이터베이스 접근성 강화	12	4.2%
합 계	289	

IV.2.5. 기타의견

- ✓ 학술자료 수집을 위한 학술데이터베이스 확대
- ✓ 대학회계 교연비 중 연구영역 확대
- ✓ 교내 연구비 지원 확대
- ✓ 전임교원의 연구실적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 ✓ 국제학술지 논문 게재에 대한 연구성과 인정비율과 교연비 금액, 승진 실적 비율을 지금보다 2배 수준으로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 ✓ 연구 인센티브 강화
- ✓ 연구 논문 지원(교정료, 투고료) - 현재는 1년에 국제 학술지 1편 정도만 발표 가능한 금액으로 책정되어 있음(가끔은 논문 1편 발표도 부족할 때도 있음, 나머지는 사비로 충당함), 그 이상 연구 논문을 발표할 경우 사비로 발표해야 함. 자연히 연구발표 논문이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구조임. impact factor(JCR)가 높은 국제학술지일수록 투고료는 점점 오르는 상황인데, 학교 정책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
- ✓ 대학원생 학비 지원
- ✓ 교내연구비 대상 확대(소액이라도), 각종 연구사업 수주 시 필요.
- ✓ 1. 중점연구과제 연구회: 실질적으로 연구과제 수주와는 거리가 먼것 같습니다. 형식적인 프로그램인 듯 합니다. 연구회를 통해 과제를 제출하는게 아니고 과제 수주시 혜택을 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제를 많이 신청한다고 수주를 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 ✓ 2. 논문게재장려금: 현재 논문 게재 장려금은 금액이 너무 적습니다. Open access 논문의 경우 게재료를 한번 지출하면 1인당 1회의 논문 게재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금액을 높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 3. 대학원생 활성화: 현재 본교는 인건비 폴링제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제가 없는 교수님들은 대학원생에게 인건비 지급이 어렵습니다. 언젠가 과제를 수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생각한다면, 과제가 없는 공백기에 등록금 이외에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의 모색이 필요할 듯 합니다.
- ✓ 4. 산학협력 유공 교원 프로그램: 불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 5. 학술연구 용역과제 인지세 및 보증보험 수수료 지원: 이 프로그램이 있어서 업체에서 저희학교에 용역과제를 더 원하지는 않습니다. 업체에서 해결해야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서 실제로 과제를 수주하기 위한 질높은 논문을 게재할 수 있는 쪽으로 지원이 필요합니다.
- ✓ 학술DB 확대 (구글에서 마음놓고 논문 좀 찾아보게 해주세요)
- ✓ 조교 증가
- ✓ 교연비 확대
- ✓ 12번 문항에서도 선택하였지만, 연구비와 관련된 예산의 전폭적인 확대, 행정업무 간소화 개선이 제일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신입교원들이 초기 임용 후 이것저것 적응하기도 바쁜 와중에 성실함과 열정으로 잠을 줄여가며 연구에 매진하는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구정착금 확대, 강의시수 감면, 행정처리 부담완화 등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 ✓ 본부 보직자들의 연구 중요성에 대한 인식부재 개선
- ✓ R&D에 대한 기초교육이 필요. 융복합에 대한 이론과 현장에 대한 교육이 부재
- ✓ 전일제 대학원생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여야 함.
- ✓ 다학제 연구 활성화를 위해 비슷한 연구 영역을 가진 타학과 교수님들과 연계

해주는 기회 마련

- ✓ 통계패키지 지원, 영어논문집필지원
- ✓ 업적평가제도 개선
- ✓ 대학원생 지원 확대
- ✓ 교연비 연구영역 개선, 산학협력단 역할 확대
- ✓ 연구중심으로 가기위한 지원확대 및 평가기준 강화, 대학원생 유치를 위한 활성화 방안
- ✓ 대학원생의 장학금 지원 확대

V. 대학원생 설문조사

본 장에서는 우리 대학 교원의 연구 수행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대학원생의 연구 수행 및 만족과 관련한 현황을 조사 분석하였다. 특히, 이번 장에서는 대학원생의 연구와 관련된 문항들을 구체적으로 설문하였으며, 총 43명의 응답을 받을 수 있었고, 그 결과에 대해 정량적으로 그리고 정성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본 장의 분석을 통해서, 현재 우리 대학의 대학원생 연구 수행 과정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를 파악할 수 있었고, 또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대학원생에 대한 설문 조사의 결과는 향후 대학 교원의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개선점을 도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V.1. 강릉원주대학교 대학원 현황

우선, 설문에 앞서 우리 대학의 대학원 현황에 대해 정리하였다. 2023년 8월 기준, 우리 대학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된 현재 운영 중인 대학원 현황을 먼저 파악하였다. 2023년 8월 현재, 우리 대학에서는 일반대학원, 경영정책과학대학원, 교육대학원, 그리고 산업대학원을 운영 중에 있다. <표 V-1>에서 볼 수 있듯이, 각 단과대학의 학과들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일반대학원에서는 석사 및 박사 과정이 개설되어 있으며, 또한, 경영정책과학대학원, 교육대학원, 산업대학원에서도 석사 과정이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다.

〈표 V-1〉 일반대학원 캠퍼스/학위별 개설 전공

캠퍼스	학위	개설 전공
강릉	석사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독어독문학과, 중어중문학과, 철학과, 사학과, 경제학과, 경영학과, 회계학과, 무역학과, 도시계획·부동산학과, 법학과, 관광학과, 행정학과, 국제통상학과, 수학과, 통계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생물학과, 대기환경과학과, 식품과학과, 식품영양학과, 식품가공유통학과, 수산생명의학과, 해양식품공학과, 해양생태환경학과, 해양생명과학과, 해양응용생명공학과, 원예학과, 환경조경학과, 치위생학과, 웰니스바이오산업학과(계약학과), 재료공학과, 전자공학과, 생명화학공학과, 토목공학과, 신소재공학과, 음악학과, 조형예술·디자인학과, 패션디자인학과, 체육학과, 치의학과, 기록관리협동과정, 해양바이오산업협동과정, 환경기술협동과정, 공간정보협동과정, 신소재기술협동과정, 산림치유협동과정, 한국과학기술분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환동해산업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동해연구소, 스마트 인프라 방재
	박사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교육학과, 경제학과, 경영학과, 무역학과, 도시계획·부동산학과, 법학과, 관광학과, 행정학과, 국제통상학과,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생물학과, 대기환경과학과, 식품과학과, 수산생명의학과, 해양식품공학과, 해양생태환경학과, 해양생명과학과, 해양응용생명공학과, 원예학과, 치위생학과, 재료공학과, 전자공학과, 생명화학공학과, 토목공학과, 신소재공학과, 조형예술·디자인학과, 패션디자인학과, 체육학과, 치의학과, 해양바이오산업협동과정, 환경기술협동과정, 공간정보협동과정, 한국과학기술연구원강릉분원, 한국식품연구원, 환동해산업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동해연구소, 스마트 인프라 방재
원주	석사	유아교육과, 다문화학과, 사회복지학과, 간호학과, 컴퓨터공학과, 멀티미디어공학과, 소프트웨어학과, 전기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기계공학과, 기계응용공학과, 자동차공학과, 산업공학과, 의료기기융복합학과(계약학과)
	박사	유아교육과, 간호학과, 컴퓨터공학과, 멀티미디어공학과, 소프트웨어학과, 전기공학과, 기계공학과, 기계응용공학과, 자동차공학과, 산업공학과

특히, 일반대학원에서는 다수의 학과에서 석사 및 박사 과정이 개설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교원의 연구수행과 가장 밀접한 일반대학원의 대학원생 현황을 〈표 V-2〉에서 살펴보았다.

<표 V-2> 단과대별 일반대학원 학생 현황

단과대학명	석사 과정 학생 수	박사 과정 학생 수	단과대학명	석사 과정 학생 수	박사 과정 학생 수
인문대학	11	3	예술체육대학	27	24
사회과학대학	34	19	치과대학	28	29
자연과학대학	23	2	보건복지대학	33	26
생명과학대학	37	15	과학기술대학	10	4
공과대학	18	12			

*<표 II-5>의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여 재정리함.

단과대별 일반대학원의 학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보건복지대학, 치과대학, 사회과학대학, 생명과학대학, 예술체육대학, 공과대학 등의 순으로 석사 학생들이 등록되어 있었으며, 박사과정의 경우에는 치과대학, 보건복지대학, 예술체육대학, 사회과학대학의 순으로 학생들이 등록된 현황을 보이고 있다. 단과대학에 따라 학생 수의 차이가 있었으며, 자연과학대학의 경우 석사과정 학생 수 대비 박사과정 학생 수가 낮게 나타났다.

경영 및 정책과학 분야의 관리자 양성을 목표로 하는 경영정책과학대학원의 경우에는 석사과정이 개설되어 있으며, 개설 전공은 강릉캠퍼스에는 경영학과, 회계학과, 지역개발학과, 산업경제학과, 법률정책학과, 국제비즈니스학과, 관광학과, 행정학과, 전자상거래학과, 국제통상학과, 안보국방정책학과, 원주 캠퍼스에는 안보전략학과, 국제무역통상학과, 관광경영학과, 사회적경제학과, 사회복지학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교육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는 교육대학원은 석사과정을 개설하고 있으며, 강릉캠퍼스에는 교육학, 교육행정, 상담심리, 국어교육, 영어교육, 중국어교육, 윤리교육, 철학교육, 역사교육, 수학교육, 물리교육, 화학교육, 생물교육, 영양교육, 미술교육, 체육교육, 음악교육의 전공이 개설되었고, 원주캠퍼스에는 컴퓨터교육과 유아교육 전공이 개설되어 있다.

산업체와 대학간의 상호인적교류를 시작으로, 시설과 설비의 공동이용을 장려하고, 기업과 대학간의 공동연구과제수행 또는 학생의 현장실습과 산업체 직원의 재교육 등을 목표로 하는 산업 대학원은 석사 과정을 개설하고 있으며, 개설된 전공은 재료공학과, 전자공학과, 생명화학공학과, 토목공학과, 신소재공학과, 원예학과, 식품과학과, 해양생명공학과, 환경조경학과, 산업미술학과, 소프트웨어학과(원주), 기계의용공학과(원주), 자동차공학과(원주), 전기공학과(원주), 정보통신공학과(원주), 컴퓨터공학과(원주), 멀티미디어공학과(원주), 기술경영학과(원주), 바이오에너지공학과(원주), 건설환경공학과(원주), 환경조경학과(원주), 기계공학과(원주), 산업공학과(원주) 등이 있다.

지금까지 우리 대학의 대학원 운영 현황을 일반대학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대체적으로 우리 대학 대학원의 운영은 활성화되어있지 않았으며, 그 중에서도 대학원 운영이 석사과정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특정 대학과 학과에

대학원생이 많이 분포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대학의 연구역량 개선을 위해서는 대학원의 활성화가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임을 고려할 때, 대학원 활성화를 위한 개선 사항 도출을 통해 만족도를 제고하여 활성화에 기여하는 노력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본 설문에서는 현재 대학원생들이 인식하는 연구 수행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 후 개선사항의 도출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V.2. 설문 문항 설계

본 연구에서는 대학 연구역량 강화의 일환으로 대학원에 대한 설문을 수행하기 위해서 1) 대학원생의 현황, 2) 학사에 대한 만족도, 3) 연구실 생활에 대한 만족도, 4) 수행 중인 연구에 대한 만족도, 5) 연구활동 현황, 그리고 6) 향후 진로에 대한 카테고리로 설문 문항을 구성하였다. 그 중에서도 대학원생 현황에 대해서는, 성별, 연령대, 국적, 전일제 학생 여부 등 기본적인 사항을 설문하였으며, 학사 부분에서는 대학원생들의 전공 수업에 대한 만족도를 설문하였다. 특히, 대학원생들에 대한 학사는 연구 수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설문 문항을 구성했다. 대학원생들의 연구실 생활과 관련해서는, 현재 연구과제에 참여 중인지, 혹은 수행하는 연구실 업무 등을 설문하게 되었고, 이어서 본인이 수행하는 연구에 대한 만족도를 설문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 수행 과정과 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연구 성과의 차원에서, 국내외 학회의 발표 및 국내외 저널 투고 또는 게재를 묻고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 설문하였다. 만족도에 대한 문항은 5점 척도로 답변을 받았으며, 그 외에도 주관식 의견을 수집하여 설문 문항 외의 연구 관련 사항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강릉원주대학교 대학원생 현황 조사

설문지 설명

본 설문은 우리 대학 교수회에서 대학원생분들의 연구 현황과 수준을 분석하고, 연구역량 향상을 위한 정책제안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모든 답변은 익명으로 처리하여 통계처리 목적으로만 이용됩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어 설문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설명(선택사항)

I. 다음은 응답자의 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해주세요.

설명(선택사항)

현재 귀하가 소속된 학과 (또는 전공)를 선택해주세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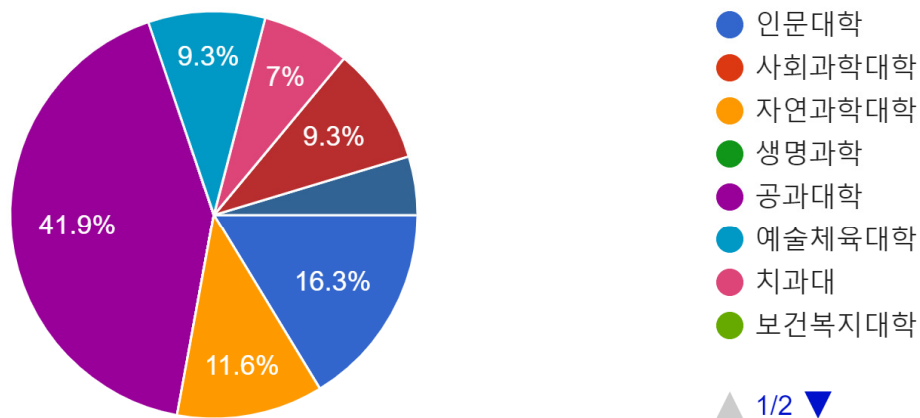
☐ 인문대학

〈그림 V-1〉 설문 화면

V.3. 설문 수행 및 결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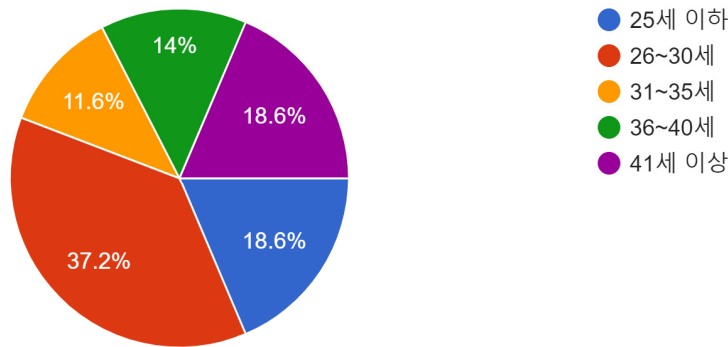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 사용한 구체적인 설문 문항들은 부록에 첨부하였다. 응답을 향상과 효율적인 설문 결과 정리를 위하여 설문은 온라인 채널로 이뤄졌다. 해당 설문 문항들은 구글폼에서 작성되었고, 이후, 온라인 설문에 대한 URL이 대학원 사무실을 통해 대학원생에게 일괄적으로 전달되었다. 2023년 8월 3주에서 4주, 2주라는 기간 동안 수행된 설문을 통해서 총 43건의 응답을 수집할 수 있었다. 일반대학원 학생이 총 355명(2023년 8월 현재)인 것을 감안하면 9.6% 정도의 응답율을 기록하였다.

우선, 아래 그림과 같이, 설문 응답자는 공과대학이 41.9%로 가장 많았으며, 인문대학 16.3%, 자연과학대학 11.6%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V-2〉 설문 응답자의 소속 단과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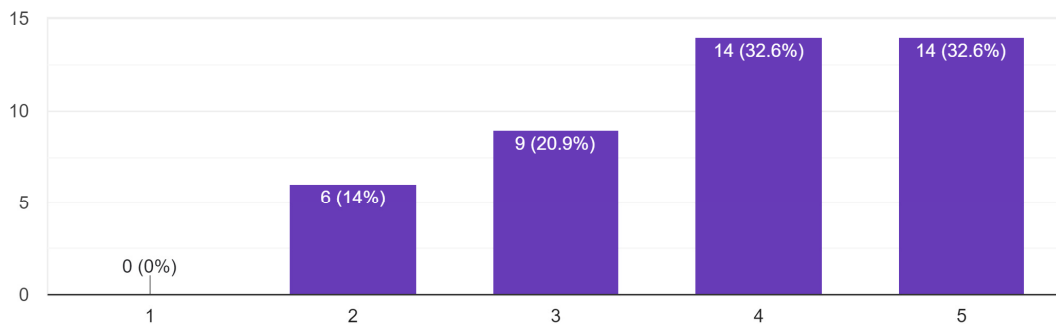
설문 응답자 중에서 석사는 53.5%, 박사는 44.2%로 나타났으며, 학석사 통합 과정은 2.3% 수준으로 측정되었다. 그 결과, 박사과정 학생의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응답자의 88.4%의 학적 상태는 현재 재학 중이었고, 11.6%는 코스워크는 수료한 후 현재 연구를 수행 중인 재학상태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 학생인 51.2%는 전일제 학생으로 연구실에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일제 학생 외에도 9.3%의 파트타임 학생이 설문에 응답하였다. 그리고 39.5%의 학생들은 현재 연구실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대학원생들은 연구실 운영 사례가 적은 인문대학이나 사회과학대학 등의 소속으로 볼 수 있었고, 본 설문의 응답에는 해당 대학 학생들의 응답비율이 타 단과대학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46.5%는 여학생, 53.5%는 남학생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응답자 중 25.6%는 기혼 상태였다. 응답자의 국적은 대부분은 한국이었으며, 26~30세 연령대가 전체의 37.2%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 V-3〉 응답자 연령별 구성

학사 관련 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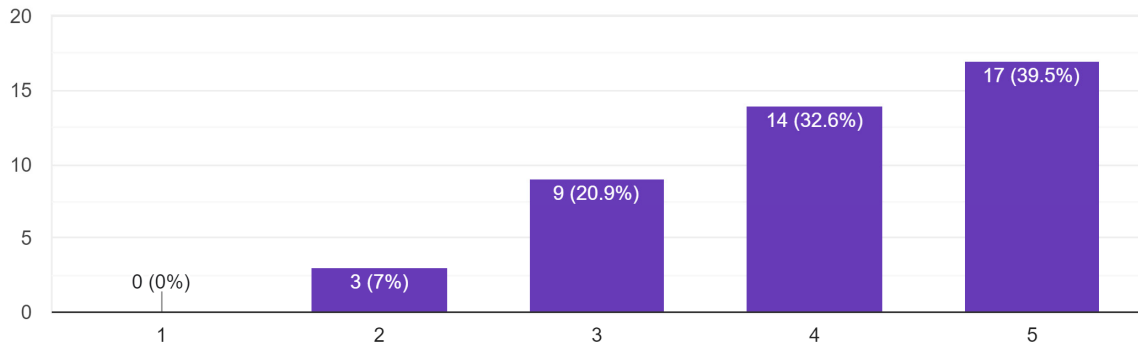
학사와 관련하여, 학생들은 전공 교과목의 개설에 대해서 65.2% 이상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문항부터 만족도에 대한 설문은 1~5점 사이로 선택하는데, 이때 1은 매우 선호하지 않음을 나타내고 5는 매우 선호함을 나타낸다. 또한, 보통이라고 답변한 비율은 20.9%였으며, 부정적인 응답은 14%에 불과하여 전공 교과목 개설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V-4〉 전공교과목 개설에 대한 만족도

(1: 매우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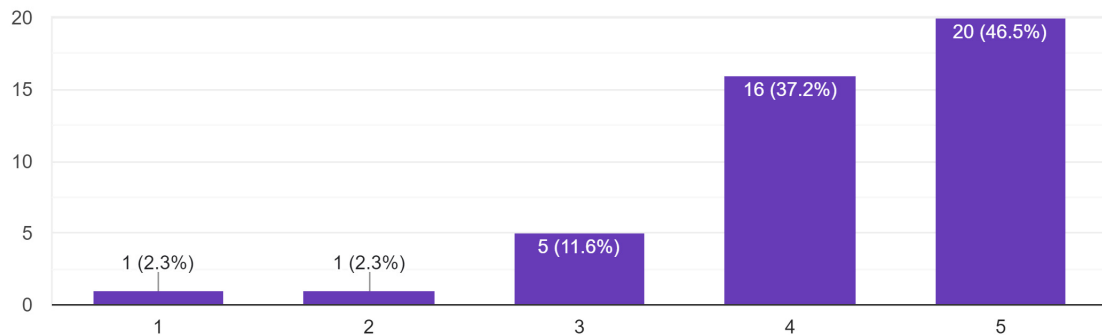
또한, 해당 전공 교과목이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는지에 대한 문항에 대해서도, 72.1% 이상의 학생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으며, 부정적으로 응답한 학생은 전체 응답자의 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V-5〉 전공교과목 개설에 대한 만족도

(1: 매우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전공 수업이 충실히 운영되는지에 대해서도 4.7%만이 부정적으로 응답하였고, 반면에 81.4%는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전공 수업에 대한 만족도는 다음 그림과 같이 83.7%가 만족한다고 답변하였으며, 11.6%는 보통의 수준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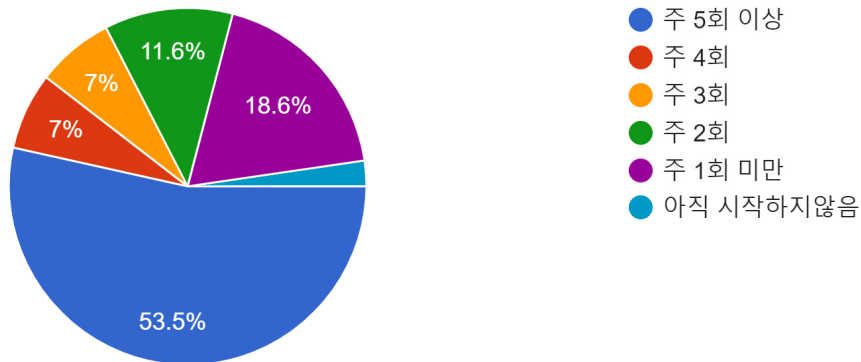
〈그림 V-6〉 전공교과목 개설에 대한 만족도

(1: 매우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그 외의 의견으로는 논문 작성에 대한 과목의 필요성, 야간 개설 교과목의 증설, 전문성 확보와 실습 수업 확대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현재의 전공 수업에 대해서는 만족하지만, 보다 다양한 전공 과목에의 수요가 있는 점도 확인되었다. 이러한 개선사항들 중 상당 부분은 대학원 활성화와 함께 발생하는 변화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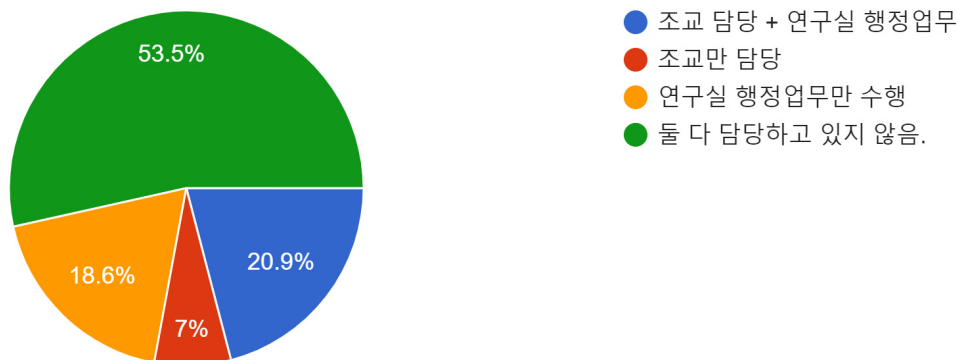
연구활동 문항

이어서 연구활동과 관련된 문항의 답변을 분석하고자 한다. 응답한 대학원생들 중 절반 이상은 주5회이상 연구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반면에, 18.6%의 응답자들은 주 1회 미만 연구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양단 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그림 V-7〉 대학원생의 주간 연구 횟수

특히, 응답자의 20.9%만이 수업 조교 및 연구실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며, 연구실 행정업무만 담당하는 경우도 18.6%였다. 반면, 수업 조교나 연구실 행정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비율이 53.5%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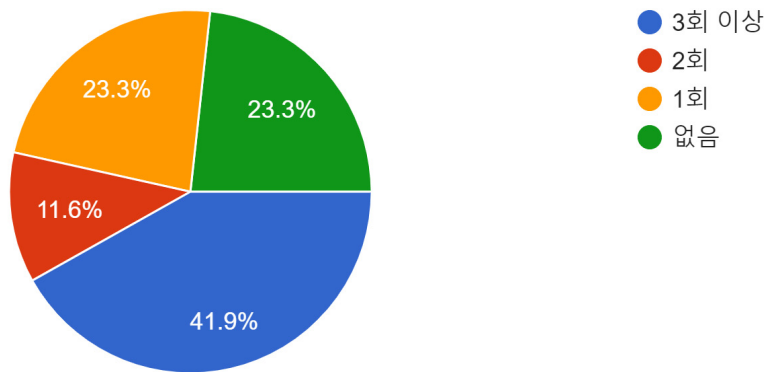
〈그림 V-8〉 대학원생의 수업 조교 및 연구실 행정업무 담당 비율

반면에, 흥미롭게도 응답자의 20.9%만이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만 수행하는 대학원생의 비율이 낮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다. 응답자들은 69.8% 이상이 명확한 연구주제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통인 경

우는 14%, 그렇지 못한 경우는 16.3%로 나타났다. 주기적으로 지도교수와 면담 여부에 대해서는 70.4%가 긍정적인 답변을 제시하였으며, 반면 20.9%의 응답자는 지도교수와의 주기적인 면담이 이뤄지지 않음을 답변하였다. 전반적으로 연구 수행에 대해서는 양호한 답변들이 많았으며, 그 외 건의 사항으로는 연구 지원 방안이나 장학제도 활성화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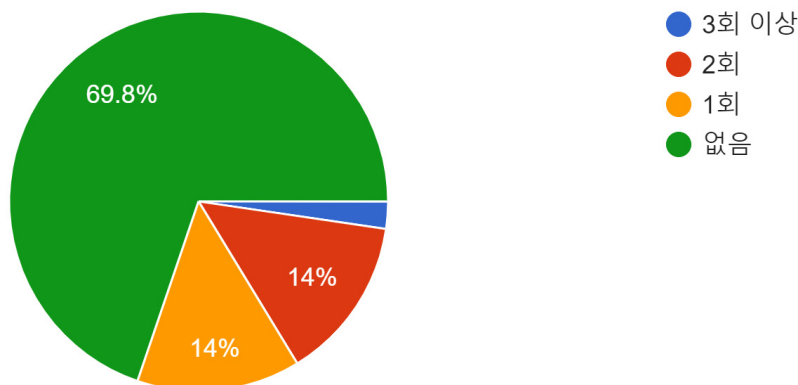
연구 성과 문항

응답자들의 76.7%는 1회 이상 국내학회에 논문을 발표하거나 참석을 한 것으로 답변하여, 연구 활동 발표와 교류가 잘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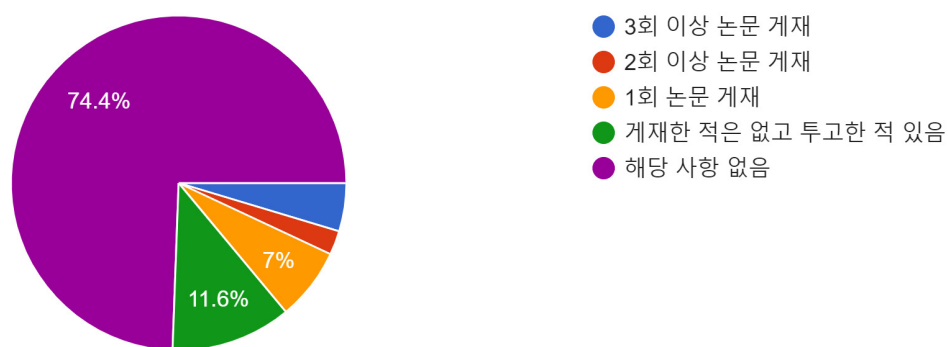
<그림 V-9> 국내 학회에서의 발표 및 참여 횟수

반면에, 국제학회에서의 참여 경험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9.8%가 경험이 없는 것으로 응답하여, 연구 성과 발표와 교류의 국제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V-10> 국제 학회에서의 발표 및 참여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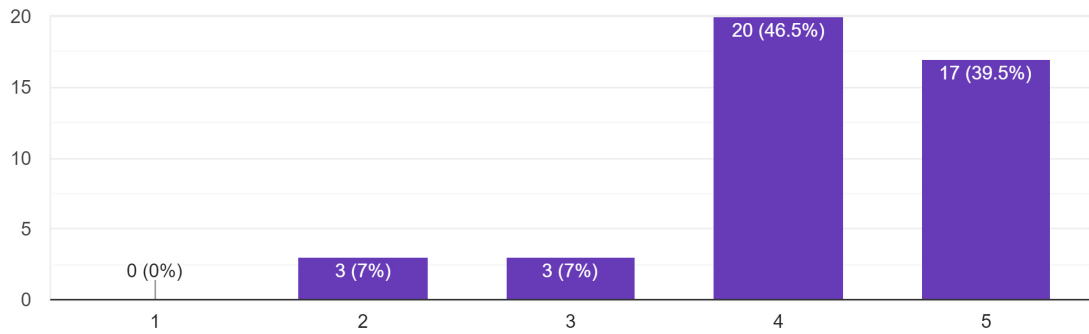
연구 논문의 게재와 관련해서는 53.5%의 응답자는 국내 저널에 논문 투고나 게재의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논문 게재의 경험은 34.9%만 갖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여서 대학원생들의 연구 논문 게재를 장려하는 지원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해외저널에 대한 투고 및 게재 경험에 대해서는 74.4%는 투고의 경험이 없었으며, 11.6%는 투고는 하였지만 게재는 못하였음을 답변하여 연구 성과의 국제화에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그림 V-11>국제 저널에의 투고 및 게재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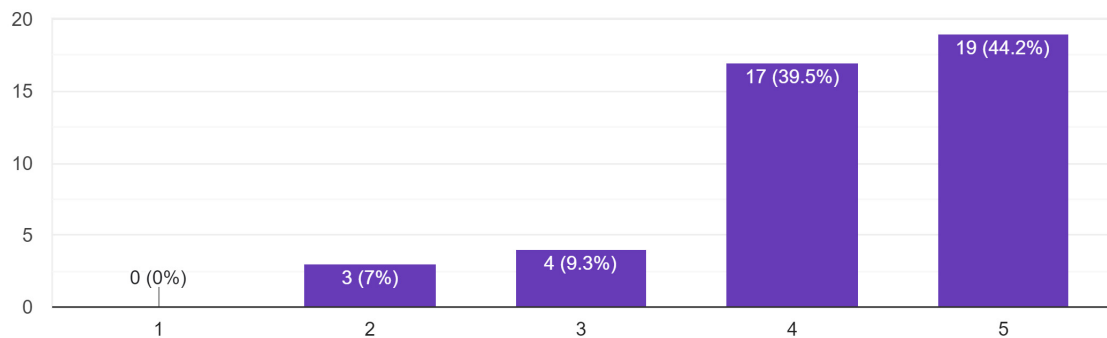
진로 관련 문항

현재 전공이 향후 본인의 진로와 관련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86%, 전공과 대학원 생활이 진로에 기여한다고 답변한 비율도 83.7%로 높게 나타나서 전공과 진로의 방향이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V-12> 전공 및 진로 연관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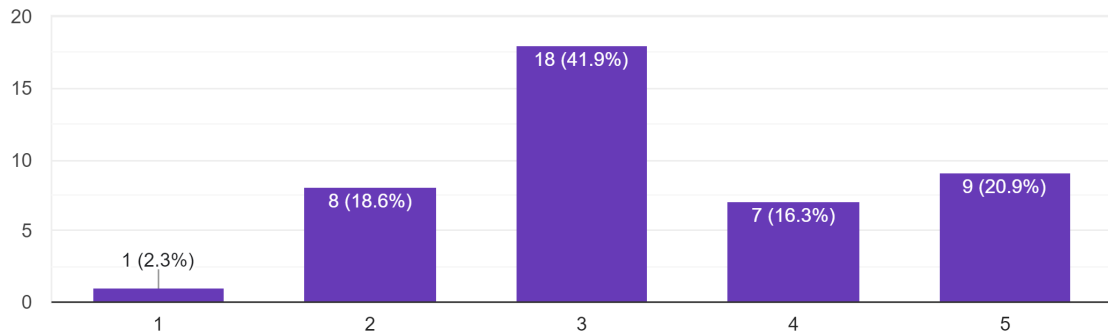
(1: 매우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그림 V-13> 전공의 진로 기여도

(1: 매우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하지만, 아래 그림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대학원생들은 졸업 후 진로에 대해, 37.2%만이 구체적으로 설정하였다고 답변하여, 이 부분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진로에 대한 지도와 지원 방안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고려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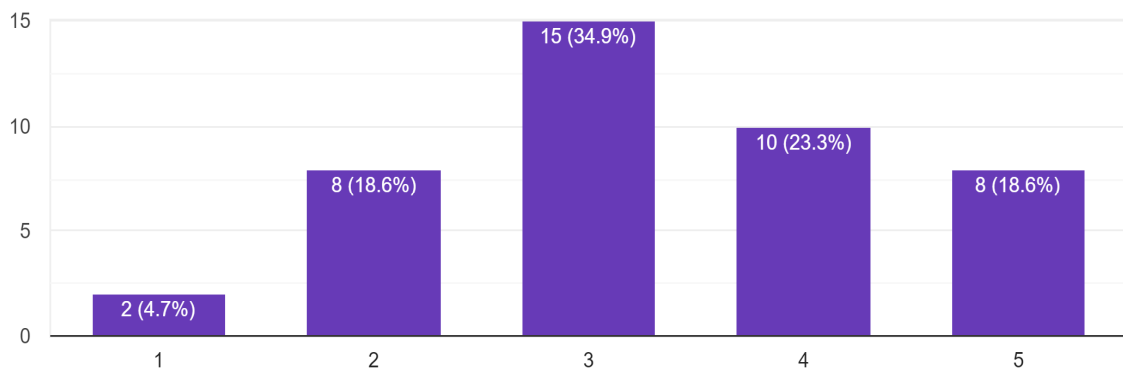
〈그림 V-14〉 구체적 진로 설정 여부

(1: 매우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특히, 박사과정 학생들은 졸업 후 본교에서 박사 후 과정 활동에 대해서 53.5%가 미정으로 답변하였고, 20.9%는 아니라고 응답을 하였는데, 그 이유로는 졸업 후 연구의 계획이 없음, 현장 업무를 선호, 타학교 진학 희망, 그리고 현재 연구 환경이 부족함을 제시하였다.

전반적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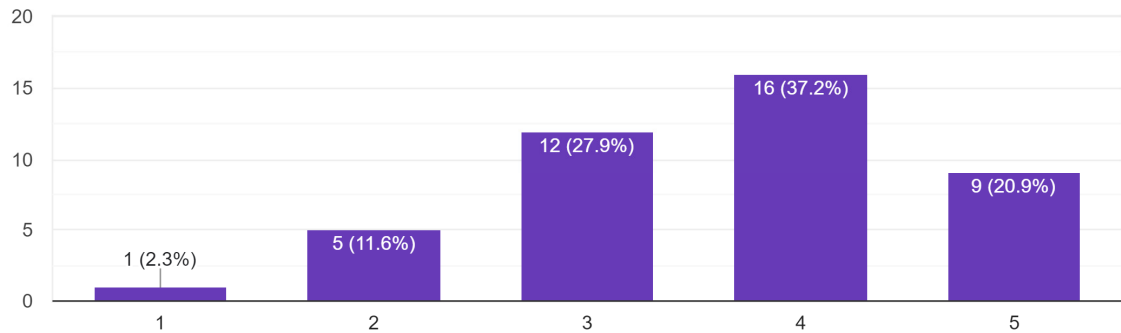
대학원생들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설문한 결과, 우리 대학 대학원생들은 본인의 연구 성과에 대해서는 41.9%만이 만족하고 있으며, 34.9%는 보통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23.3%는 만족스럽지 않은 응답을 하였다.



〈그림 V-15〉 전반적 만족도

(1: 매우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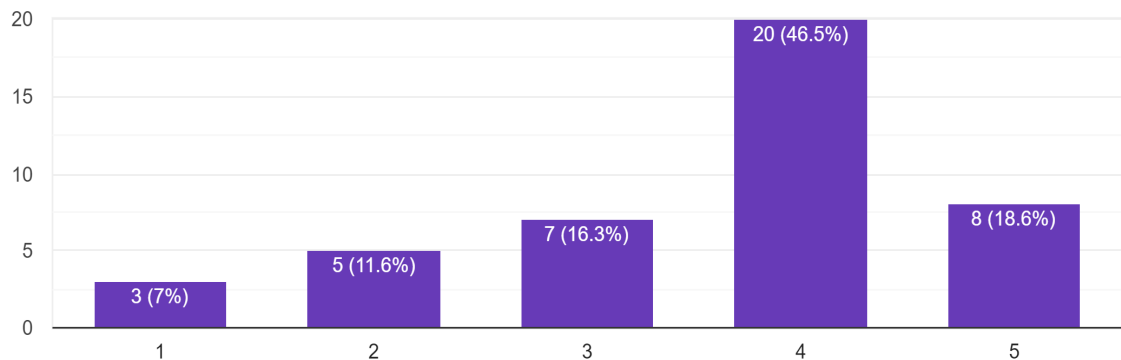
대학원생들의 연구 성과 제고를 통한 동기 부여 및 연구 촉진 등의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고려되었다. 반면에 연구 성과 외, 현재의 연구 수행 방식이나 연구실 생활에 대해서는 만족하는 응답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원생의 연구 성과를 늘리는 방향으로 향후 연구실 운영에의 개선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 V-16〉 연구 수행 만족도

(1: 매우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전반적인 연구 환경 역시 65.1%의 학생들은 만족하였으며, 18.6% 학생들은 불만족하는 비율을 보이고 있다. 그 외 의견으로는 학술지 논문 제공 확대, 비교과 프로그램의 확충 등이 있었으며, 단과대학 상황별로 시설 및 장비에 대한 교체 수요도 응답되었다.



〈그림 V-17〉 연구 환경 만족도

(1: 매우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V.4. 정책 시사점

본 설문 분석은 우리 대학의 연구 중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대학원생의 연구와 관련된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설문 조사에 대해 전체 일반대학원생 355명 중 43명 응답하여 설문 응답 비율 9.6%이었다. 우리 대학의 대학원은 전반적으로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이며, 주로 석사 과정을 중심으로 운영 중에 있다. 또한, 대학원생이 특정 학과에 집중되어 있는 분포를 보였고, 전체 대학원생 중에서 파트타임 대학원생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도 하였다.

설문을 통해서 파악한 결과, 대학원생들이 인식하는 전공 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양호하였다. 특히, 전공 교과는 충실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새로운 트렌드를 잘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다양한 전공 교과 개설, 교육과 연구 촉진을 위한 방안, 비교과 프로그램 부족 등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추후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이어서, 대학원생의 연구 수행에 대한 설문 결과, 우리 대학은 대학원생의 연구 수행을 위해 비교적 양호한 환경이 제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실 생활을 하는 대학원생 중 연구실 업무나 수업 조교를 맡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으며, 이는 우리 대학의 대학원생들이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에 있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반면, 파트타임 대학원생의 비율이 적지 않았는데, 이들에 대한 연구 수행 환경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조사가 향후 필요할 것으로 보였다. 그리고 대학원생들의 연구 수행 성과에 대한 만족도나 성취 정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인 독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학원생의 연구 성과 증대는 우리 대학의 연구 성과로 직결되며 교원들의 연구 수행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에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와 프로그램 확충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많은 대학원생이 국제학회나 국제저널에의 참여 경험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리 대학 연구의 국제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대학원생의 국제 학회 및 저널에 대한 참여를 장려하는 제도나 인센티브가 필요하겠다. 이러한 국제 협력 연구는, 본 설문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나타난 대학원생의 진로 설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국제학회나 저널에의 참여 과정에서 전공 분야의 새로운 트렌드에 대한 파악과 연구의 동기부여, 그리고 향후 대학원생의 진로에 대한 정보 등을 습득할 수 있다면, 대학원생들의 연구 주제 탐색, 구체적 진로 설정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VI. 인문·사회과학 연구 및 교육 발전을 위한 제언

VI.1. 서론

본 연구는 대학의 교육혁신에 있어서도 연구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며, 특히 우리 대학과 같은 소학과 중심의 교육과정을 지닌 대학에서 학과간 학술분야간 공동 연구는 이를 극복하는 좋은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한국 대학의 교육혁신의 중심은 당연히 고도화하는 사회수요에 맞추어 교육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며, 현재 학생(수요자) 중심의 선택권 확대를 목적으로 하여, 구체적으로는 다양한 교양교육 확대와 많은 연계전공, 융복합전공 분야를 창출하고자 하고 있다.

소규모 학과에 맞게 전임교수 위주로 편제된 우리 대학의 경우 다양한 교양교육 과정 확대와 융복합 전공을 창출하여 다양한 학생 선택권을 확대시키려는 목적은 장기간에 걸쳐 교육자이자 연구자이기도 한 교수의 융복합 자질의 개발과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학문 연구자를 개발 지원하려면 학문 특성에 기반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 인문학과 사회과학 분야는 이공계 분야에 비해 사회적으로도 위축되고, 투자도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분야이다.

현재 우리 대학에는 단과대학별 연구소가 있지만, 제대로 연구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앞선 장들에서 살펴본 바처럼 인력, 재정 등 여러 지원이 부족한 탓도 있지만, 학술과 학문의 관점이 부족한 점이 크다고 생각된다. 장기적으로는 연구역량이 축적되어야 교양교육과 교육의 질도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소 간 대화도 매우 부족하다. 대학에서 인문학과 사회과학은 종합적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일부 대학에서 인문사회종합연구원을 두고 그 하위에 제학문간 소통, 경쟁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또 성과를 사회에 알리는 것(발신)이 매우 중요하다. 과거에는 대학이면 당연히 출판부가 존재하였다. 현재 많은 대학에서 출판을 직접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다양한 방법으로 성과 발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학문적 특질에 기반한 사회적 역할과 그 진흥 방향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먼저 인문사회과학 육성 필요성에 대해 논하기 위하여 제언의 배경을 통해 학문으로서 인문사회과학이 어떠한 역할을 지니고 있고 그 기능과 공헌이 무엇인지를 먼저 밝히고, 이어서 육성의 방향성에 대해 제언하도록 하겠다.

VI.2. 제언의 배경

1) 제 학문 분야에서 인문·사회과학의 역할과 사회적 과제

인류를 발전시켜 온 지식체계 즉 학문에 있어서, ‘인문학’이란, 인간 및 인간이 만들어내는 문화나 사상을 대상으로 하는 것의 총체이며, ‘사회과학’은 인간이 항상 집단성을 지닌 사회적 존재임을 전제로 하여 인간 집단의 내적 관계 내지 집단 간의 상호관계를 해명하는 학문이다. 인문학 및 사회과학은 ‘사람, 사회, 세계에 관한 학문’이므로 사회적일 수 밖에 없다. 사회, 세계는 항상 변화하고 있으므로, 이를 인식하는 ‘새로운 세계관’ 등의 틀(프레임워크)도 변화하기 마련이다. 원래, 학문에 대한 사회로부터의 기대는 개별적인 실증 연구의 쌓아 올리는 것 뿐만이 아니라, ‘인간, 역사,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문명사적인 과제에 대한 ‘인식 프레임워크’의 창조에 있다.

그러나 현재 인문학과 사회과학은 이러한 ‘인식 프레임워크’의 창조라는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연구 분야와 연구 과제의 세분화와 고정화가 너무나 많이 진행되어 있다.³⁾

인류사적으로 보면 ‘세계관’에 영향과 변화를 주는 기초적인 것은 자연과학적 지식의 확장이었다. ‘새로운 세계관’이라고 하는 ‘인식 프레임워크’의 창조의 전제에는, 개별적인 실증 연구 성과를 쌓아 올리는 것이 필수적이고, 이것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인문학이나 사회과학이 사회의 기대에 부응하려면, 지나친 연구의 세분화가 극복되어 ‘역사’나 ‘문명’을 부감할 수 있는 연구에 대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인문학과 사회과학 양자는 모두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서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동시에 자연과학계의 지식체계도 학술을 구성하는 필수적인 요소로서 상호의존적이고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인문·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은 원래 ‘리버럴아츠⁴⁾’로 일체를 이루고 있었다. 양자의 분리가 진행된 것은 산업화 이후의 근대사회, 특히 19세기 후반 이후이다. 자연과학의 각 분야에서 전문분화가 진행된 결과, 특히 구체적인 기술을 개발하는 공학분야에서 인문·사회과학과의 거리가 점차 넓어지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실제로 공학도 과학과 기술을 사회에 어떻게 구현하는지에 대한 문제의식과 전혀 무관하지는 않다. 반대로 사회과학도 공학적인 지식을 접하지 않고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없

3) 물론 이는 한국이 수용해온 현대 구미의 인문학 및 사회과학이 전문분화를 이룬 ‘개별과학’이며, 이 역사적 경위가 그 후의 한국의 ‘학문’의 존재를 규정하고 있는 영향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인 점이 작용한 것이라 생각된다.

4) 「리버럴아츠」란, 역사적으로는, 고대 그리스에 기원을 가지는 「자유학예 7과(자유 7과)」를 말한다. 「7과」는, 주로 언어에 관계되는 「3학」(문법·수사학·변증법[논리학])과, 주로 수학에 관련된 「4과」(산술·기하·천문·음악)로 구성되었다. 철학은 이들 7과 위에 위치해 전체를 통괄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중세~근세 유럽의 대학에서는 신·법·의라는 전문학부 아래에 철학부(학예학부)가 있으며, 여기서 기초적인 교양과목으로서 자유 7과가 가르쳐진 것이다.

다. 우주의 구조나 물질의 본질을 탐구하는 이학과 인문·사회과학(예를 들어 철학)도 서로 교류하지 않고 진정으로 학문적인 도약을 이룰 수 없다.

현재의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과제들을 보면 여러 과학간 연계의 필요성은 명백하다. 지구적인 시야에서의 해결이 요구되는 환경 문제, 인공 지능(AI) 등 정보기술의 개발과 깊이 관련되는 노동의 변화나 군사이용의 문제, 혹은 유전자 조작 등을 포함한 생명윤리의 문제 등은 그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자연과학의 발전은 인류에게 큰 혜택을 주는 반면, 때로는 통제 곤란한 에너지와 회복불가능한 지구 환경 파괴를 일으켰다. 전통적으로 인문·사회과학은 자연과학의 발전에 대해 '인간성'과 '사회시스템'의 관점에서 다시 되묻는다. 한편, 인구문제나 환경문제에 나타나듯이, 이른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서는 이해관계도 다르며, '함께 살기' 위해 인류는 다양하고 다층적인 딜레마와 마주하고 한다. 인문·사회과학에는 과제의 재검토나 지구의 지속가능한 체제 만들기를 비롯하여 많은 책임이 부과되어 있다. 인문·사회과학이 사회적 과제에 대응하여 제 역할을 다하려면 다음과 같이 (1) 학문과 사회의 대화 (2) 사회로부터의 지지가 필요하다.

(1) 학문과 사회와의 '대화'

우선 학술적인 관점에서 학문과 사회와의 '대화'가 필요하다. 실정법학이나 회계학 등 사회과학의 응용분야는 자연과학이나 공학 분야처럼 전형적으로 실무 전문가와의 교류가 불가결한 분야가 존재하고 있다. 당연히 이러한 분야에서는 학문이 사회와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학술적인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된다. 공학분야에서 사회는 산업과 동일시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산학연계가 바로 사회와의 대화라 할 것이지만, 인문학 및 사회과학 전반에 있어서도 자연과학이나 공학 분야처럼 사회와의 '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한국의 사회적인 현실을 구미의 학설의 적용에 의해 설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독자적인 학설에 의해 이것을 이해해 나가는 것에 대한 사회로부터의 기대는 크다. 또 특히 사회과학에 있어서는, '최첨단'의 과제는, 아카데미즘 측보다, 사회 측에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2) 사회로부터의 지지를 얻기 위한 발신

다음으로, 학문의 발전을 위해서는, 학문이 사회적 존재로서 인지되어 사회로부터의 지지를 획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학술적 의미가 아니라 사회적 의미이다. 자연과학의 경우라면 산업이나 의료·복지 현장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이의 해결을 통해 학문이 성장하고 있다. 또 그 반대 프로세스도 많다. 학문으로부터 실제 사회를 향해 많은 성과가 환원되는 경우이다. 이에 대해 인문학 및 사회과학의 경우라면 사회생활에 돌려 보내줄 수 있는 정치와 경제에 대한 이해, 문화생활을 풍부하게 해 줄 역사나 예술에 대한 이해 등 정신면에서의 영향을 통해 사람들에게 실감을 주고 있다. 즉, 대학에서의 **교양교육** 등을 통해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성과는 주로 가시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 인문학이나 사회과학의 경우에는 그 성과가 공업제품이나 용품 등처럼 눈에

보이는 형태를 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회의 사람들이 성과로서 환원되고 있다는 실감을 얻기가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아마도 인문학이나 사회과학에서는 성과를 사회로 발신하는 방식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대학에서의 교육활동 뿐 아니라 널리 사회에서 독자층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 또 사회 현실의 문제와의 학문적인 대화는 물론, 사회 전체에 대한 문화를 양성해 나가는 다양한 활동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일본 문부과학성 자료(2019)에 의하면 다음의 제3장 목차와 같이 인문사회과학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자세히 서술하고 있다.

제3장 인문학 및 사회과학의 역할·기능

제1절 학술적인 역할·기능

1. 이론적 통합 — 학문의 기초

- 1) '메타 지식'학
- 2) 다양한 '가치'의 평가
- 3) '인간'의 연구

2. '실천'의 학

- 1) 오피니언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
- 2) 사회에서의 '취침단'의 과제에의 대응

제2절 사회적인 역할·기능

1. 사회적 공헌

- 1) '인간'이나 '문화'등의 문명사적인 자리매김
- 2) 전문가와 시민과의 커뮤니케이션 지원
- 3) 정책과 사회의 문제 해결

2. '교양'의 형성

- 1) '공통규범'으로서의 '교양'
- 2) '교양'의 문화적 다양성
- 3) '가치'에 대한 판단력으로서의 '교양'

3. '시민'의 육성

출처: 人文学及び社会科学の振興について (報告) - '対話'と'実証'を通じた文明基盤形成への道, 2019.1.20.
https://www.mext.go.jp/b_menu/shingi/gijyutu/gijyutu4/toushin/1246351.htm

2) 학문의 종합적 발전에 있어서 인문·사회과학의 특징을 살린 공헌

종합적인 학문의 발전을 위해 인문·사회과학은 그 학문적 특징을 살려서 적극적으로 공헌해야 한다. 학문의 종합적 발전을 위하여 잘 살려야 할 인문·사회과학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역사(시간)’와 ‘비교(공간)’의 시점을 살린다

인문·사회과학은 인간과 인간이 낳는 문화, 그리고 사회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의

상호관계를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역사(시간)'와 '비교(공간)'의 두 가지는 사고를 깊게 하는 기본적인 본질적인 관점이다. 자연환경을 비롯한 다양한 조건 하에서 인류는 어떤 문제에 직면하고 그것에 어떻게 맞서왔는가. 어떠한 학문 분야에서도 시간 축과 공간 축을 교차시켜야 비로소 우리는 현재의 좌표와 위치를 확인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 걸음을 제대로 구상할 수 있다.

② '가치'를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인류 공통의 가치'를 단련한다

인문·사회과학은 또 '가치'에 대한 고찰을 깊게 하는 데 큰 특질이 있다. 세계인권선언(1948.12.10. 유엔총회에서 채택)이 정하는 바와 같이, 모든 사람은 '생명, 자유 및 신체의 안전에 대한 권리'(제3조)를 갖고, '과학의 진보와 그 혜택에 부합하는 권리'(제27조)를 가진다. '자유·평등·안전·행복추구'는 인류가 도달한 보편적 인권으로 여겨지지만, 이 권리가 보장될 때까지는 가치관의 대립을 둘러싸고 지난한 항쟁을 여러 차례 겪었다. 오늘날에도 여성의 인권과 LGBTI(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and intersex:소위 성적 소수자)·소수민족의 권리보장을 둘러싸고는 국제사회에서나 국내에서도 가치관의 엄격한 대립이 있다. 중요한 것은 시점, 어느 사회에서 주류로 되는 가치관을 당연시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 축과 공간 축을 교차시켜 그것을 위치시키고, 비판적으로 음미하면서, '인간의 존엄'이나 '평화'라고 '인류 공통의 가치'를 부단히 단련하는 것이다. 그것은 인문과 사회과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작업이며, 그 외의 학문과의 접점이 필요하다.

③ 다양한 접근법을 구사한다

자연과학과 마찬가지로 인문·사회과학에서도 각 개별 분야에서는 그 성격이 균일하지만은 않다. 인간과 사회에 대한 원리적 고찰을 행하고, 그 인식을 심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초연구적·분석적 성격의 것도 있고, 문제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응용과학적인 성격의 분야도 있다. 문제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개별 문제에 대해 명확하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공하고자 하는, 말하자면 '공학적'(설계적) 역할을 가진 것도 있고, 제시된 문제와 과제 그 자체를 재검토하여 문제를 재설정하거나 단기적으로는 효과적으로 보이는 해결책의 문제점이나 부정적 측면을 지적하거나 하는 '계발(啓發)적' 역할을 가진 것도 있다. 이처럼 접근법의 다양성 또한 인문·사회과학의 특성이며 다른 학문에도 적용가능한 관점이다.

④ '글로벌·내셔널·로컬'이라고 하는 3개의 차원을 조망한다.

사람·자금·정보가 국경을 넘어 활발하게 이동하는 글로벌화된 현재, 학문에서도 각각의 나라나 지역을 넘어, 인류에 공통된 과제들에 임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다른 문화를 배경으로 하는 사람들의 다양성을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한편 글로벌화는 지역분쟁의 격화, 빈부의 격차 확대 등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 세계적 규모로 빠르게 문화를 균질화하고 특정 문화의 가치 기준에 여러 가치를 일원화하거나, 오랜 역사를 통해 자라온 다양하고 다원적인 문화와 가치관을 경시·무시할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 인문·사회과학적 지식의 관여 없이는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은 불가능하다.

글로벌 지식의 교류를 촉진하면서, 근대 이후의 세계에서 태동된 내셔널한 성격과 균형을 잡아, 내셔널한 것에 의한 억압이 우려되는 로컬인 것에도 유의해야 한다. 또 다양한 차별 등에 근거하는 배제를 어떻게 극복하는지하는 것은 21세기 사회에 공통되는 과제이다. 서구 중심주의, 국가 혹은 일국 중심주의, 동아시아 중심주의적인 발상을 모두 극복하고 상대화하여 '글로벌·내셔널·로컬'이라는 세 가지에 따른 정체성을 가진 '시민적 주체'를 형성하는 것은 학문의 국제협력 요인이기도 하다.

⑤ (다)언어의 의의를 이해하여 국제적 발신을 풍부하게 한다.

인간과 사회의 대부분은 고유의 역사적·문화적 배경을 가진 언어에 의해 매개되고 있다. 영어가 학술의 공통 어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과도하게 강조되는 문제도 간과되어서는 안된다. 다른 언어(연구 대상 문화, 사회에서 사용되는 언어 등)가 상호이해의 공통어가 될 수 있으며, 다른 언어 간의 번역이라는 작업이 다른 문화 및 사회를 이해하기 때문에 독자적인 가치를 가진 연구영역이 된다. 위상이 높아진 한국의 수준에 맞춰 학문에서도 이루어낸 국내 성과의 다양한 국제적 발신이 요구되고 있다.

VI.3. 인문학 및 사회과학의 육성 방향에 대한 제언

앞서 지적한 인문사회과학이 학문적 특성과 그 역할·기능을 근거로 향후 우리 대학의 연구역량 진흥 방향성을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우선 현재의 연구지원체계 하에서는 대학의 대부분의 연구는 연구처 기능을 산학협력단이 하고 있으므로 산단 내에서도 (인문사회)학술정책위원회를 두든지, 아니면 각기 독립적으로 있는 인문학 연구소, 사회과학연구소가 공동으로 학술정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1) '대화형'공동연구의 추진

'다른 사람'과의 '대화'라고 하는 인문학 및 사회과학의 연구 방법상의 특성을 살려 다음과 같은 과제를 추진한다.

(1) 공동연구의 추진

① '문화의 대화'의 필요성

'연구의 세분화'에 관한 과제를 극복하는 것이 인문학 및 사회과학의 비약적인 전개를 촉진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다른 역사, 문화적 배경을 가진 여러 지역 국내외의 학자와의 '대화', 즉 공동연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국제 공동연구를 통한 한국의 '학자'의 활약은, '학문의 대화'라는 성격에 더해, '문화의 대화'라는 성격도 띠고 있어, 역사적, 문화적인 의의가 크다. 학문은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인 존재이기도 하고, 지적으로 높은 수준에서의 '문화의 대화'를 보증하는 장치로서도 기능하고 있다. 지역학(예 강원학)이라 해도 마찬가지이다. 지역내에서만 대화가 이루어지기 보다는 타 지역과의 '대화'가 필연적일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지역학을 지역 소재 자원, 문화에 국한하여 부문을 협소화시키는 경향이 크다.

② '대화'로서의 '지역학(강원학 등)' 추진

인문학 및 사회과학의 공동연구의 추진을 생각할 때 '지역학'라는 연구영역은 특별한 존재이다. 즉, '지역연구'란, 스스로가 스스로를 연구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일종의 '한계'가 있다.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연구'에서 타지역과의 공동연구라는 연구방식이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즉, '다른 사람'을 '거울'로서 스스로를 비추어 보는 행위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가 학술적인 의미와 함께 문화적인 의미를 더 가질 수 있을 것이다.

(2) 이질적인 분야와의 '대화'

이질적인 분야와의 '대화', 즉, 이질적인 분야의 학자와의 공동연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질적인 분야와의 '대화'로서의 공동연구는, '타인'과의 '대화'에 의한 '보편성'의 획득과정이라 할 수 있다.

첫째, 공동연구의 상대방, 즉 '대화'의 상대방은 명확하게 '이질'이어야 한다. 이질적인 분야와의 '대화'라는 관점에서 공동연구를 추진함으로써, 거기에 내포된 학문의 비약적인 전개에의 계기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역사학자가 새로운 시각에서 통사를 쓰는 경우에 새로운 시각을 획득하려면 역사학 그 자체에 깊게 침잠하는 것 외에도 환경과학이나 생태학과 같은 이질적인 분야와의 "대화"가 유익하다. 또, 철학자가 '존재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으로 볼 경우에는, 양자역학이나 우주론이라고 하는 이질적인 분야와의 '대화'가 불가결하다.

둘째, 원리·원칙이나 방법론 등 학문의 존립 기반에 관련된 레벨에서의 '대화'여야 한다. 원리·원칙이나 방법론 등 학문의 존립기반에 관계되는 레벨에서의 상호작용을 통해, 학문의 근원적인 변혁이나 비약적인 전개를 촉진하는 계기가 내포되어 있다. 예를 들어, 경제학의 한계혁명이나 정치학이나 사회학에 있어서의 행동과학적 어프로치의 도입과 같은 과거사례를 돌아볼 때, 거기에서는, 각각 경제학과 수리과학의 '대화', 정치학이나 사회학과 심리학과의 '대화'가 행해진 결과, 학문의 비약적인 전개가 도모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정책이나 사회의 요구에 응하는 연구'의 추진

- 지역정책과제 프로세스 구축하고 개별연구 보다는 프로젝트화

(1) 인문학 및 사회과학에 있어서의 '정책이나 사회 요구에 응하는 연구'의 추진

오늘날 지역사회나 정책의 요구에 부응하는 연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

재 이공분야의 연구에 대해서는 '학술연구' 지원과 '정책과 사회의 요청에 부응하는 연구'의 지원이라는 두 가지 정책적 지원체계 하에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인문학 및 사회과학에 있어서는 '정책이나 사회의 요청에 응하는 연구'의 지원은 매우 한정적이다.

향후 국가나 세계가 직면하는 경제, 사회적인 과제를 생각하면, 인문사회과학에 있어서의 정책이나 사회의 요청에 응하는 연구의 중요성도 커질 것이다. 다만 '정책이나 사회의 요구에 응하는 연구'추진에 있어서는, 연구 프로세스 중에서 경험적인 타당성을 일정한 증거에 근거해 입증해 나가는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미로, 실증적 연구방법이 필수적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공계 분야에서는, 정책과제 대응형의 연구개발 추진에 있어서는, 국가가 중장기적 관점으로부터 전략적 및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분야를 정해, 우선적으로 연구자금을 배분하는 시책이나, 산학관에 의한 공동연구 추진이나 인재 육성의 관점에서 연구 거점을 마련 지원하는 시책을 강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인문학 및 사회과학에 있어서의 '정책이나 사회의 요구에 응하는 연구'의 추진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유효하다고 생각된다.

(2) '미래 과제에 경쟁공모로 심사, 채택, 실시하는 타입의 연구 프로그램'의 추진

국가정책이나 사회의 요청을 근거로 대처해야 할 과제를 밝히고, 그 해결을 향해, 우선적, 전략적으로 지원해야 할 연구의 목표, 연구 영역·프로젝트 등을 설정해, 그 실시에 있어서는, 공모에 의해 구체적인 연구과제를 모집하고 경쟁적으로 연구자금을 배분한다. 또, 학제간적, 융합적 대처를 촉구하는 제도를 대학내에서도 생각할 수 있다.

현재 지자체(강릉시)가 필요한 정책 수해를 위해 일부 정책과제를 시에서 의뢰받아 교내 공모로 하는 방식이 실시되고 있다. 과제발굴은 연구자(교수) 개별로 이루어지더라도 문연구(문제해결) 수행은 공동으로 하도록 하여 질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2024년부터 지자체가 대학지원의 한 주체로 되는 RISE에 대응하여 대학이 선제적 적극적으로 정책과제 수행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향후, 사회가 직면할 과제의 크기에 근거해, 학자의 학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구 영역의 확대 등을 통한 사업의 적극적 전개를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

※ 대처해야 할 정책적, 사회적 과제에 대해

오늘날 인문학 및 사회과학의 지견을 활용하여 대처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정책적, 사회적 과제로는 다음과 같은 지구환경문제나 빈곤문제 등의 근미래에 있어서의 전지구적인 과제의 해결이나 저출산·고령화 문제 등의 미래에 한국과 지역이 직면하게 될 과제들을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근래 미래에 있어서의 전지구적인 과제의 예】

지속가능발전문제

빈곤 문제 - 경제 성장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

에너지 문제 - 탈탄소화 사회를 향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

인구 문제 - 개발 도상국의 도시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

환경 보전과 경제 성장 - 지속 가능한 경제는 실현 가능합니까?

가치관이 다른 문명의 공존

과학기술의 성과를 사회에 적용하는 경우의 윤리나 합의 형성 등의 문제

【근래 미래에 있어서 지역이 직면하는 과제의 예】

저출산 · 고령화를 전제로 한 한국 사회 및 지역사회의 존재 방식

삶의 질 향상 - 일생활 균형 -

지역통합 돌봄체계

해양개발 및 해양생태계 보전

3) 성과 발신

'타인'과의 '대화'라고 하는 관점으로부터, 성과의 발신의 중요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사회와의 '대화'라는 관점에서 성과를 수용하는 '독자'를 사회에서 획득하게 된다. 또 이의 연장으로서 대학 등에서의 교양교육의 충실은 미래의 '독자'의 함양에 기여한다.

(1) '독자'의 획득

우선, 연구 성과로서의 저작물이나 번역 작품 등을 수용하는 '독자'를 사회에서 획득하기 위한 대처가 중요하다. 여기서, '독자'란, 사상이나 역사, 문학 작품과 같은 여러 고전의 '독자'나, 인간이나 사회를 둘러싼 제 문제를 소재로 한 신서 등의 '독자'라는 사람들을 상정하고 있다.

이러한 '독자'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교양'의 사회적 확산 확보가 필요하며, 또한 교양의 사회적 확산은 학술논문과는 별도로 저작물이나 번역작품 등의 간행을 통한 학자 자신의 사회와의 '대화'의 노력과 미디어 관계자의 이해와 협력을 얻음으로써 실현되어 갈 수 있다.

또, 대학에 있어서, '타인'과의 '대화'라는 관점에서 국제적인 통용성을 가질 수 있는 교양교육이 확립되어, 그러한 교양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강의나 연습에 있어서의 학식과 열의 학생의 인격이나 지의 이력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의해, 장래의 '독자층'의 두께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교양의 형성은 개인에 속하는 사항이며, 본래는 개인의 열의와 대처에 의해 맡겨져야 하지만, 그것이 단순한 지식의 습득이 아니라, 성격이나 지식의 형성으로 이어지는 것이라면, 교원과 학생과의 '대화'로서의 교양 교육 역할의 중요성은 높게 평가된다.

(2) 해외로의 발신

다음으로 해외를 향한 성과 발신이 중요하다. 학술적으로도 역사나 문화면에서도 이질적인 맥락하에서 (반론도 포함한) 이해와 관심을 획득하는 의미는 크다. 이와 같이 '타인'과의 '대화' 기회를 펼쳐 나가겠다는 관점에서 대처가 이루어지면 성과발신의 양이 늘어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인문학 및 사회과학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VII. 결론

본 연구는 우리 대학의 연구역량 수준 및 현황을 파악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확대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하였다. 우리 대학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지원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현황에 대한 객관적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대학의 현황 분석을 위해 타대학과의 비교(II장), 이어서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타 대학에서 실행하고 있는 사례조사(III장), 구성원의 만족도 및 수요에 대한 분석(IV장과 V장)하고, 특히 연구역량 강화가 필요한 인문사회과학분야의 특징과 역할 등(VI장)을 논의하였다. 우선 본 연구의 각 장별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 II장에서는 우리 대학의 연구 역량 현황과 연구 지원 현황을 다각도로 비교분석하였다. 우리 대학과 비슷한 지위인 대학들과의 그룹간 비교를 통해 우리 대학의 수준을 객관적으로 보고자 한다. 지역중심국립대학 그룹, 강원도내 대학들과 연구역량 및 지원현황을 비교 분석한다. 학문별 연구 특성이 다를 것이므로 단과대학별 특성을 고려하여 비교한다.

제 III장에서는 연구지원 방안 마련을 위하여 타 대학의 인적 연구역량 개선 및 강화 사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를 분석하였다. 제 1절에서는 대학의 학부생 역량 강화 및 대학원 진학률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1) 학석사 연계과정 2) 학부생 연구참여 프로그램 등의 사례를 조사하였다.

다음으로 대학 구성원들에 대한 설문 조사를 통해 연구지원 현황 및 수요를 파악하였다. IV장에서는 전임교원을 대상으로, V장에서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전임교원들에 대한 조사 문항은 교내 연구지원제도에 대한 인식수준, 교원 연구역량 강화 상대적 중요도, 타 국립대학 대비 상대적 만족도, 연구 지원제도 및 환경의 불만족 이유,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항 등으로 구성되었다. 조사에 응답한 교원은 총 59명으로 응답율은 15.9%(총 전임교원 371명), 소속별로 생명과학대학 10명(16.9%), 공과대학 9명(15.3%), 사회과학대학 8명(13.6%), 자연과학대학 7명(11.9%), 치과대학 7명(11.9%), 보건복지대학 7명(11.9%), 인문대학 4명(6.8%), 과학기술대학 3명(5.1%), 예술체육대학 2명(3.4%), 산학협력단 2명(3.4%) 순이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우리 대학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교원 연구역량 강화의 중요성에 대해 매우 중요(평균 4.7점)으로 나타나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2) 교원 업적분야별 상대적으로 우선순위 문항에 대해 “교육” 업적이 “연구” 업적보다 상대적으로 조금 더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3) 타 국공립대학에 비해 우

리 대학의 교원 연구제도 및 환경의 상대적 만족수준에 대해서 “매우 불만족” (32.8%), “불만족” (22.4%), “보통” (34.5%)로 나타나 다소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다. 4) 교원 연구 지원제도 및 환경이 만족스럽지 못한 이유(복수응답)로 “대학원생 부족 및 미활성화” (47회), “강의 등 교육업무 부담” (31회), “교내 연구지원제도 다양성 부족” (23회), “상대적으로 낮은 연구비 규모” (22회), “국책연구과제 수주를 위한 역량(전문인력, 인프라, 제도 등) 부족” (19회) 등의 순으로 높게 응답하였다.

5) 가장 시급한 개선 방안에 대해 전임교원들은 “대학원 석박사 지원 확대(장학금, 우수연구자 지원 등)”, “교원 논문게재장려금 확대 및 다양화”, “박사후 과정(Post-doc) 활성화 노력”, “학부생 연구 참여제도 확대(학-석박사 연계과정 도입 등)”, “교내 연구과제 지원 및 규모 확대(학술연구조성비 등)”, “신임교원 대상 연구지원 확대(연구정착금 확대, 강의시수 감면)”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대학원생의 연구와 관련된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수행한 설문조사는 전체 일반대학원생 355명 중 43명이 설문에 참여하여 응답 비율이 9.6%이었다. 우리 대학의 대학원은 전반적으로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이며, 주로 석사 과정을 중심으로 운영 중에 있다. 또한, 대학원생이 특정 학과에 집중되어 있는 분포를 보였고, 전체 대학원생 중에서 파트타임 대학원생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도 하였다.

설문을 통해서 파악한 결과, 대학원생들이 인식하는 전공 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양호하였다. 특히, 전공 교과는 충실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새로운 트렌드를 잘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다양한 전공 교과의 개설 및 교육과 연구 촉진을 위한 방안, 비교과 프로그램의 부족에 대해서는 만족하지 못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추후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이어서, 대학원생의 연구 수행에 대한 설문 결과, 우리 대학은 대학원생의 연구수행을 위해 비교적 양호한 환경이 제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실 생활을 하는 대학원생 중 연구실 업무나 수업 조교를 맡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으며, 이는 우리 대학의 대학원생들이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에 있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반면, 파트타임 대학원생의 비율이 적지 않았는데, 이들에 대한 연구수행 환경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조사가 향후 필요할 것으로 보였다. 그리고 대학원생들의 연구수행의 성과에 대해서 만족도나 성취 정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인 독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학원생의 연구 성과 증대는 우리 대학의 연구 성과로 직결되며 교원들의 연구수행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에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와 프로그램 확충의 노력이 필요하다.

많은 대학원생이 국제학회나 국제저널에의 참여 경험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리 대학 연구의 국제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대학원생의 국제 학회 및 저널에 대한 참여를 장려하는 제도나 인센티브가 필요하겠다. 이러한 국제 협력 연구는, 본 설문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나타난 대학원생의 진로 설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

다. 국제학회나 저널에의 참여 과정에서 전공 분야의 새로운 트렌드에 대한 파악과 연구의 동기부여, 그리고 향후 대학원생의 진로에 대한 정보 등을 습득할 수 있다면, 대학원생들의 연구 주제 탐색, 구체적 진로 설정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VI 장에서는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 연구 및 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현행 대학내 단과대 연구소를 인문사회종합연구원으로 재편하고, 학술정책을 기획,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필요성과 약간의 수행 방향에 대하여 제안하였다. 가장 강조할 점은 인문사회과학의 특질을 '대화형' 공동연구의 추진과 누적이다. 다음으로 2024년부터 지자체가 대학지원의 한 주체로 되는 RISE에 대응하여 대학이 선제적 적극적으로 정책과제 수행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지역대학의 교양교육, 시민교육 강화 등 성과 발신 방향 등이다.